

연구보고 R543 | 2007. 12.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

김 정 호 부 원 장
박 문 호 연 구 위 원
이 용 호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정 호	부 원 장	연구총괄, 제1~5장, 8장 집필
박 문 호	연구 위원	전업농가 사례조사 분석, 제6장 집필
이 용 호	연구 위원	통계자료 분석, 마을조사 분석, 제7장 집필

머 리 말

가족농(family farm)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이상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가족농이 상당 기간에 걸쳐 농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에서도 가족농 보호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사하면서 가족농의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의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을 창설하였으나,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변질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라 농지임대나 위탁영농이 증가해 온 반면에 전업농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의 존속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중농층이 분해되면서 영세농의 증가와 아울러 농업생산이 대농 층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전문화로 특징지어지는 농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농가의 인력 구조나 경영체 성격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농업인력과 경영체의 육성 및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과 경영구조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부와 통계청 관계자에게 감사 را 드린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과 경영구조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농의 동태적 변화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농가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농가 육성 및 농업구조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 내용은 농업경영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경영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영농규모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사회적 단위의 관점에서 농업경영 형태 및 조직화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성격 변화에 대한 실증 사례로서 전업농의 경영발전 과정을 조사하고, 농촌마을에서의 농가의 역할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제2장부터 5장까지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농가의 성격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제6장에서는 농가의 경영발전 과정에 대하여 품목별로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을에서 농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가족농(*family farming*)이라는 용어는 헨리 테일러(1919)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가족적 농업경영’의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차지농과 고용농 등으로 가족농의 성격이 변질되어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선진국들도 가족농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농업경영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가도 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첫째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가족 구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점이다. 농

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1960년대의 6인 수준에서 2005년 2.7인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통적인 2~3세대 가구의 농가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핵가족화 진전에 따라 1세대 가구(부부 가구) 및 독신 가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농업경영의 승계도 불투명하여 영농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의 16.4%에서 2005년에는 3.5%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영규모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논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05년에 호수로 4.9%, 면적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전업농의 농지유동화 동향을 보면 고지가(실세지가>수익지가)로 인해 과거의 생계형 임차농이 쇠퇴하고 기업적 임차농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반면에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지 못한 농가는 영세농 계층으로 누적되어 농가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5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47만 호(전체농가의 37.3%)이며, 그중 65세 이상이 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영세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지원이 농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농가의 농업경영 분화는 노동력 분화와 영농 형태의 분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력 분화는 전업과 겸업의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영농 형태의 분화는 벼농사에 전문화 혹은 다른 작목과 복합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농가의 전겸업별 동향을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겸업농가는 1종 겸업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겸업 종사자는 경영주 겸업보다 가구원 겸업이 많은 경향이다.

농가의 농업경영 형태를 보면, 1970년대 말에 주곡 자급을 달성할 정도로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소득작목이 도입되는 등 상업농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개방화 진전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작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다. 1990년대 초 농업성장을 주도했던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은 그 후 감소세로 반전되고, 소득이 안정된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농가 간에 농작업이나 농업경영을 협력하기 위한 생산조직이 성립되고 있다.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조사한 생산조직 참여농가는 22만 6천호(작목반 20만2,342호, 농업법인 4만9,200호)이며, 이들이 결성한 농업 법인은 총 5,626개(영농조합법인 4,293개, 농업회사법인 967개)가 운영중이다. 농가의 조직화는 1980년대 이후 공동생산과 공동출하 등의 작목반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업의 방향에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성립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의 주역을 담당할 신규 창업은 저조하고 기존 전업농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승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농층이 분해되면서 대다수의 농가가 영세농으로 전락하고 특히 생계형 고령농가가 농촌의 중심 세력으로 남게 됨으로써 농촌사회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90년대까지를 농가 중심의 농정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농가 이외의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가족농이 농업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은 사실이지만, 농가 중심의 농정 체제가 바뀌어야 할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맞춤형농정’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면서 건실한 가족농을 육성해 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맞춤형 농정을 통해 정책 대상의 기준을 구분함으로써 농가 정의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춤형농정은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 맞춤형농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에서 농업법인까지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발전해야 한다.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농정 차원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

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비효율적인 고령농가를 어떻게 유연하게 은퇴시키느냐 하는 것이며, 현재의 고령농가는 대부분 전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농업구조조정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경영은퇴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농업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자연스런 은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경영주가 유연하게 경영이양할 수 있도록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농업 조직화와 함께 지역의 자원과 여건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농업 조직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의 이농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지가 황폐화되고 농촌사회가 활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농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형태의 위탁영농조직이 필요하다. 지역농업의 조직화는 전통적인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농가가 품목 조직이나 지역 조직을 결성하고 농산업화를 통해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ospects and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arm Househol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management structure of farm households and project future changes. In particular, it theoretically reviews the dynamic changes of family farms, depicting the actual state and projecting future changes using statistical data and an actual case study on the basis of which we drew poli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size and quality of farm households and government policies on agricultural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industrial progress worldwide and social changes such as aging, the role and size of family farming is decreasing. Nevertheless,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amily farming, setting up various policies more than ever.

The characteristics of a Korean farm household as an agricultural management unit are becoming weaker. First, family structure has become fragile by aging and atomized family. The average number of farm family members decreased to 2.7 persons per farm household in 2005 from 6 in 1960. As a result, one-generation households and one-person households became a main stream. The rate of households having a farming successor sharply declined to 3.5% in 2005 from 16.4% in 1990.

The farmland area per farming household has been increasing as the number of farming households decreased at a much more faster pace than the relatively slower decline in cultivated lands. Specifically, since the mid-1990s, agricultural resources such as land and livestock have been concentrated on large farming households. For that reason, the expansion in farming scale quickly spread while the rest small farms operated by old farmers remained stagnant. According to the 2005 Agriculture Census, the rate of farming households under 0.5ha stood at 37.3% (470,000 farming

households) and the rate of farming households run by farmers aged over 65 years was 48%. Problems related to small and old-age farming households are serious and polic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are urgent.

Specializat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labor and farming types. By labor types, the rate of full-time farming has been increasing since 1996 while the part-time farming where agricultural income is more than non-farm income has been decreasing. By farming types, staple cultivation was at the center of Korean agriculture up to the late 1970s and cash-crop productions began from 1980 onward. At present, the growth trend of income from livestock, specialty crops, and floriculture is being reversed by the cultivation of income-stable rice, fruit, and vegetables.

As stated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households as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have weakened and the succession of their sustainable management is not clear due to the lack of successors and farmers newly starting an agricultural management. Also, the vitality of rural society fell sharply because old and small farming households have become the center of rural region.

From now on, the focus of agricultural policy has to be changed from family farming households to various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It is necessary to set up customized agricultural policies and foster sound family farming households. To accomplish customized agricultural policies, it is important to transform the 'farming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to an 'agricultural management registration system.' A retir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management and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old farmers will have to be set up. Also, it is important to foster local agricultural organizations to assist farming households and make full use of local agricultural resources and circumstances.

Researchers: Kim Jeong-Ho, Park Moon-Ho, Lee Young-Ho

E-mail address: jh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목적과 범위	6
4.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6

제2장 가족농 이론과 논의 배경

1. 가족농의 개념과 의의	9
2. 외국의 가족농 동향	12
3. 우리나라 농가의 특징	19

제3장 농가의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

1. 농가 인구의 변화와 전망	29
2. 농가의 가족 구성 변화	38
3. 농업경영주와 경영 승계의 전망	44

제4장 농업경영의 자립과 규모화

1. 농가의 자립경영 규모	49
2.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 계층분화	54
3.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의 동향	61

제5장 농가의 농업경영 형태와 조직

1. 농업경영의 분화와 영농 형태	67
2. 농가의 조직화 동향	72

제6장 전업농가의 경영 발달사 사례

1. 조사 개요	80
2. 사례 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과 성공 요인	81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91

제7장 농촌마을과 농가의 변천 사례

1. 조사 개요	93
2. 사례 마을의 농가 구성과 영농 여건 변화	94
3. 사례 마을 농가의 영농 실태와 전망	105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110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113
2. 결론 및 정책 제언	117

부록 1: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122
----------------------------	-----

부록 2: 영농규모별 생산 비중 전망	126
----------------------------	-----

부록 3: 주요국의 농가 통계	129
------------------------	-----

참고 문헌	136
-------------	-----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법률상 농가 정의의 변화	21
표 2- 2. 농가의 주요 지표 변화	27

제3장

표 3- 1.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30
표 3- 2. 성별 농가인구	31
표 3- 3. 연령별 · 성별 농가인구(남자)	31
표 3- 4. 연령별 · 성별 농가인구(여자)	32
표 3- 5.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분포	33
표 3- 6.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의 변화	34
표 3- 7. 연령별 · 농업종사기간별 농가 분포	34
표 3- 8. 농가인구의 코호트 시산 방법	36
표 3- 9. 농가인구 장래 추계	37
표 3-10. 도시와 농촌의 가구원 구성 및 가구 형태의 변화	39
표 3-11.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	40
표 3-12. 경영주 연령별 가족구성 분포	41
표 3-13. 전 · 겸업별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자 수	42
표 3-14. 영농 형태별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자 수	42
표 3-15. 고령자와 동거하는 농가 특성의 로짓 분석	43
표 3-16.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44
표 3-17. 경영주 연령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45
표 3-18. 연령별 농업 경영주의 예측	45
표 3-19. 영농승계자 거주지 및 연령별 농가	46

표 3-20. 영농형태별 영농승계자 보유농가 수 및 비율	47
---------------------------------------	----

표 3-21. 영농승계자 보유에 대한 로짓 분석	47
----------------------------------	----

제4장

표 4- 1. 주요 작목별 자립경영규모 시산	53
--------------------------------	----

표 4- 2. 벼농사 자작농의 자립경영규모 추이	54
----------------------------------	----

표 4- 3. 경지규모별 농가계층분화 동향	55
-------------------------------	----

표 4- 4.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56
-------------------------------------	----

표 4- 5.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분포	56
-------------------------------	----

표 4- 6.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 누적분포	57
-----------------------------------	----

표 4- 7.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 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	58
---	----

표 4- 8. 경영주연령별 판매금액별 논벼농가와 논면적 분포	58
---	----

표 4- 9. 논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59
---------------------------------	----

표 4-10. 밭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59
---------------------------------	----

표 4-11. 영세농의 경영체 성격	60
---------------------------	----

표 4-12. 논 임차료와 농지가격 추이	62
------------------------------	----

표 4-13.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의 추이	62
--------------------------------	----

표 4-14.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63
--------------------------------------	----

표 4-15. 논 경영규모별 위탁(전부위탁) 농가 수 및 비율	64
--	----

표 4-16.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위탁) 비율	64
---	----

표 4-17. 위탁영농(이양작업)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65
---	----

제5장

표 5- 1. 전·겸업별 농가 분포	69
---------------------------	----

표 5- 2. 전업농가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70
---------------------------------------	----

표 5- 3. 영농형태별 농가 동향	71
---------------------------	----

표 5- 4. 벼농사 전문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72
---------------------------------------	----

표 5- 5. 영농 형태별 생산조직 참여농가 수	75
표 5- 6. 농가 이외의 경영체 현황	76

제6장

표 6- 1. 조사대상 전업농의 경영 개황	80
표 6- 2. 전북 익산 J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81
표 6- 3. 경남 합천 Y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83
표 6- 4. 전북 장수 J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86
표 6- 5. 경기 이천 S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88
표 6- 6. 경기 안성 K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90

제7장

표 7- 1. 조사대상 마을과 농가 수	94
표 7- 2. 전·겸업별 농가 분포	105
표 7- 3. 호당 평균 경지면적	105
표 7- 4. 현재 경작지 중 임차지 비율	106
표 7- 5. 영농의 가장 큰 어려움	106
표 7- 6. 전년도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	107
표 7- 7. 연간 생활비 분포	107
표 7- 8. 경영주 취농 시 선친과의 관계	108
표 7- 9. 농가 창설의 형태	108
표 7-10. 영농후계자 상황	108
표 7-11. 농업경영주 연령별 분포	109
표 7-12. 농가의 향후 영농 의향	109

제8장

표 8- 1. 농가 특성별 변화 전망	118
----------------------------	-----

그 립 차 례

제2장

그림 2- 1. 농가, 가족농,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	11
그림 2- 2. 가족농의 성격 변화 경로	18

제3장

그림 3- 1. 농가인구에 대한 농업종사자 비율	35
그림 3- 2. 농가인구 연령별 · 성별 추이와 전망	37
그림 3- 3. 세대 형태별 농가 분포	41

제4장

그림 4- 1. 자립경영의 하한규모와 상한규모	51
그림 4- 2. 총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55

제5장

그림 5- 1. 농가 분화 과정의 모식화	68
그림 5- 2. 농업생산조직의 발전 단계	73
그림 5- 3. 농업법인의 사업 형태 분포	77

제7장

그림 7- 1. 방동리의 가구 구성 변화	95
그림 7- 2. 방동리의 영농 여건 변화	96
그림 7- 3. 가회리의 가구 구성 변화	98
그림 7- 4. 가회리의 영농 여건 변화	99
그림 7- 5. 용성리의 가구 구성 변화	100
그림 7- 6. 용성리의 영농 여건 변화	101

그림 7- 7. 풍정리의 가구 구성 변화	103
그림 7- 8. 풍정리의 가구 구성 변화	104

제8장

그림 8- 1. 향후 10년간 농가의 존속 가능성 전망	119
그림 8- 2.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 육성의 체계	120

1. 연구의 필요성

가족농(family farm)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이상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앞으로도 가족농이 상당 기간에 걸쳐 농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에서도 가족농 지원정책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사하면서 가족농의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 체제를 창설한 이후 오늘날까지 건설한 농가(가족농)의 육성을 농정의 근간으로 삼아 왔으며, 최근에는 농업 구조정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평균적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농가의 유형별로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농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농가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로 임대농이나 위탁농과 같은 비경영적인 농가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업농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승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중농층이 분해되면서 영세 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대농 층으로 집적되는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서론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정 반세기를 압축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였으며, 특히 농업생산이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농가 간 또는 산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개방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견되는 향후 10여년간은 한국 농업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DDA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전문화로 특징지어지는 농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농가의 경영체 성격 및 인력구조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농업인력과 경영체의 육성 및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행히 2005년에 농업총조사가 실시되어 최근의 농가 성격을 전국적인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농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의 농가경제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농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추가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농업통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농가 연구의 개관

농업경제학계에서 농가의 성격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에 들어서이며, 이후 농가 연구가 농업구조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1984년에 “농업구조 문제의 현실과 조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업구조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

심을 고조시키고 농가의 성격 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양부 박사는 1983년에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 분석” 연구를 수행한 후, 1984년에는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F-사이클”(Farm Household Life Cycle) 이론 가설로 체계화하고 농가의 성격이 가족 구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농민층 분해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박진도(1987), 차홍균(1987), 박홍진(1988) 등이 우리나라 농가의 계층분화가 중농표준화 형태에서 양극분화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 및 가족구조에 대하여 실증조사와 분석이 시도되었다. 김정호(1992)는 가족농의 경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농가 정의의 상향조정을 주장(1993)하였다. 정기환(1992)은 처음으로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가족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화에 따른 농가의 성격 변화를 재조명(1993)하였다. 오내원(1998)은 10년간의 마을 사례조사를 토대로 농가와 촌락구조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가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991년에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최재석 교수는 농촌사회학 연구의 선구자로서 1970년대부터 농가의 가족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학맥을 이어가는 최근 연구로 김홍주(1994)의 농민 가족 연구, 김철규(2004)의 신농업사회학적 접근 등이 눈에 띈다.

또, 한국농촌사회학회는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가족농 체제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장경섭(1995)을 중심으로 “가족농 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을 주제로 한 특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조승연(1997) 등이 농가와 가족농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책적으로는 1990년대 들어 농업구조 개선이 대두되면서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전업농 정책이 착수되었으며,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가족농 육성정책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농가의 경영구조를 파

4 서론

악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1990년과 1995년의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농업경영 변동분석”(1997)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5년간의 소멸농가·계속농가·신규농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농의 규모화 및 농업법인 육성이 강조되었으나,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농정의 중심이 가족농 육성과 중소농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2.2. 이슈별 논점

2.2.1. 가족 구성과 농업경영 존속

농가가 생산경제(경영)와 소비경제(가계)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가족 구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특히 가족주기와 농업경영규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차야노프(A.V.Chayanov) 등에 의해 소농경제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농가 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농업노동력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양인구 측면에서도 논의되었으며, 농업경영주의 연령과 가족주기를 고려하면서 경지규모의 변동을 분석하여 가족농의 미래 모습을 전망하기도 한다. 농가의 가족 구성과 세대 형태, 농업경영주의 성격, 가구원의 취업 상태, 농업후계자 보유 여부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및 장래의 농가를 규정하고 전망하는 계량분석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2.2.2. 농업경영 규모와 계층 분화

경영규모별 농가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농가계층 변화와 아울러 경영규모 확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제도나 경영정책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석 과제이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농지개혁 이후 1965~90년 기간 중 농가의 계층구조는 영세농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규모가 큰 대농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농층이 감소하고 영세농과 대농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농가 양극화 경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대규모 농가의 경영존속(going concern) 가능성과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2.2.3. 농업경영 형태와 조직

우리나라 농가는 대부분이 영세농이며 복합경영이기 때문에 영농 형태 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업농가는 대체로 특정한 품목에 전문화되어 단작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세농일수록 작목의 선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경영규모와 연계한 영농 형태의 구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화 경향을 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소량 다품목으로 범위경제(scope economy)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경영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농가의 경영 목적과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및 외부의 기술적·제도적 여건 등이 농업경영 조직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2.2.4. 농가와 농촌지역사회의 관계

농가는 지역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농지 등 이동 불가능한 지역자원을 토대로 농업경영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촌락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농가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영농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분석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지연조직이 점차 해체되면서 기농조직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조직과 같은 임

6 서론

의조직이 농업법인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 조직체가 지역농업의 새로운 경영주체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3. 연구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과 경영구조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농의 동태적 변화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농가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농가 육성 및 농업구조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경영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영농규모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사회적 단위의 관점에서 농업경영 형태 및 조직화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 농가 성격의 변화를 분석하는 시계(時界, time horizon)는 농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1990년대 이후로 설정하여 1990~2005년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미래 전망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정도의 전망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1990년 이전의 통계자료까지 연장하여 분석한다.

4.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이 연구는 농가의 농업경영체 성격을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내용은 농업경영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경영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영농규모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사회적 단위의 관점에서 농업경영 형태 및 조직화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따라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제2장부터 5장까지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농가의 성격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제6장에서는 농가의 경영발전 과정에 대하여 품목별로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을에서 농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족농의 이론과 논의 배경을 정리한다. 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가족농의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고, 이어 외국의 가족농에 대한 논의 동향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가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농가의 정의를 비롯한 통계적 및 정책적인 분류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농가의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농가의 인구사회학적 성격을 나타내는 속성으로서 농가 인구와 가족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농가 주부와 여성농업인의 성격을 검토한다. 그리고 농가의 존속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 후 영농후계자의 경영승계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농업경영의 자립과 규모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농가는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경영규모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립경영 규모에 대한 품목별 및 연차별 자료를 검토한다. 그리고 농업경영 규모의 변동에 관한 요인들을 검토한 후, 경영규모 확대의 시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농가계층분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양극화의 최근 동향과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그리고 농업경영 규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지유동화 및 자작농의 동향을 검토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대농의 생산 비중을 전망한다.

제5장에서는 농가의 농업경영 형태와 조직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논농사를 시작으로 전업과 겸업의 분화를 거쳐 농업경영 형태의 전문화 또는 복합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업농과 겸업농의 성격 그리고 품목별 영농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영세농들은 생산조직을 통하여 조직화의 유리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화의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전업농가의 경영발달사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앞에서 통계적으로 파악한 경향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의 창설과 취농 동기를 파악한 후, 농가 창설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규모화, 조직화, 사회활동 등을 살펴보고, 경영주 은퇴와 경영승계 전망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농촌마을 속의 농가 변천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농가는 마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마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조사대상 마을의 가구 구성과 농가 성격을 검토하고, 이어 농지나 가축 등 지역농업 자원의 배분 상황, 개별농가를 보완하는 영농조직 동향, 지역농업 추진주체의 전망을 검토한다.

제8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한 후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농가의 정의 조정과 맞춤형농정 추진, 농가 육성의 체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외국의 농가 통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정리한다.

1. 가족농의 개념과 의의

‘가족농’이란 용어는 ‘family farming’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며, 본래 이 용어는 헨리 테일러(H.Taylor)의 저서(Agricultural Economics, 1919)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당시는 자본제적 경영 혹은 기업가적 경영에 대응하는 의미가 컸다. 오늘날의 가족농은 ‘가족적 농업경영’의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을 단위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영”이라는 점에서 가족노작경영(family worked farm)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족농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농업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경영 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즉, 서구의 대규모 농장제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농사회 국가에서도 가족농 형태가 발전하여 정착되고 있는 반면에, 19세기 말엽부터 카우츠키(K.Kautsky)에 의해 주도된 협동농장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

세계 각국에서 가족농 체제를 채택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강조되는 점은 첫째, 봉건지주제의 폐해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근세의 지주-소작 관계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후

¹ 가족농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업 방식인 데 대하여 사회주의 농업 방식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에 많은 국가에서 토지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농업 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족농이 다른 경영 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농업생산은 자연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규모경제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농업경영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참여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셋째는 가족경영을 지지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다. 이 점은 가족농의 역사성에도 기인하지만, 특히 사회적인 소득 분배 측면에서 농업이라는 소득원이 가족농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가족노동 보수의 향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된 가족농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자본가적 기업경영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가족농의 경영 단위를 보면, 가족단위의 소규모 경영이라는 점이다. 이는 본래 자급자족에서 출발한 가족농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생산방식에서는 가족노동력 이용 중심의 생산체계라는 점이다. 즉, 가족농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서는 덜 발달된 형태일 수밖에 없는 특질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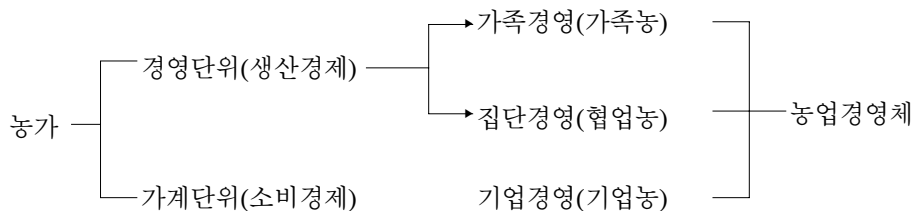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특질 때문에 경제주체로서 경영(생산)과 가계(소비)가 분리되기 어려우며, 나아가서 혼합소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농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존속이 세대 단위의 승계, 즉 가계(家系)의 계승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족농의 본래 의미는 가족노작경영이었으나, 농업경영이 노동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농의 본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농은 가족단위의 경영이다. 즉, 특정한 가족원 1인 혹은 복수의 가족원의 협의에 의해 농업경영 상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가족농은 가족원의 노동력 공급에 의해서 영위된다. 즉,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전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분적 종사자를 포함하여 가족원이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

그림 2-1. 농가, 가족농,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



이 가족농의 일반적인 필요조건이다.

셋째, 가족농의 가족원은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와 자식, 형제 등 소수 근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1인의 아들의 가족과만 동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이다.

이에 부가하여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의 가족농,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농가의 중요한 특징은 세대적(世代的) 계승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세대적 계승이란 경영자산이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상속에 의해 아버지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로 계승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족농은 농업경영 측면에서 노동력의 자기고용, 불황에 대한 강인성,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교육 기능과 유연한 경영승계 등의 강점을 가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가족농의 개념론적 위치를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표현하였듯이 농가는 경영 단위(생산경제)인 동시에 가계 단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업경영 부문을 떼어내면 ‘농가=가족농(가족적 농업경영체)’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경영으로서의 가족농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적인 집단경영이 성립된다.

한편, 가족농은 흔히 기업농과 대응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 기업농의 본래 의미는 경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다. 따라서 기업농을 기업이 참여하는 농기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족농이란 ‘농가’라고 하는 개

12 가족농 이론과 논의 배경

념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족농의 실체가 농가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농의 본래 의미는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미 언급하였듯이 가계와 경영이 혼합된 경제 주체로서의 농가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2. 외국의 가족농 동향

2.1. 미국

미국의 가족농은 제퍼슨(T.Jefferson)이 제시한 가족경영에 대한 이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는 가족농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가족주의: 자급의 미덕과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
- ② 경영적 감각: 경영적 판단력, 스스로의 의사 결정과 책임
- ③ 정치력: 토지소유로 투표권 및 시민의 지위 향유

제퍼슨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농민은 어디까지나 자작농과 자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사회 계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가 가능한 한 세습의 형태로 다음 세대의 농민에게 이전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여 제퍼슨이 제창한 가족농은 농업경영의 측면보다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농민의 자질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농의 이상은 19세기 말부터 급격히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농산물 시장이 발달하면서 자급보다는 상업적인 농업이 팽배하고, 영농 활동에 고용 노동력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농에 따라 임차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작농 중심의 가족농이 서서히 해체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에서 가족농에 대한 정의의 수정이 농업 정책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게 된 것은 뉴딜(New Deal) 정책 이후 정부가 농업에 깊이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가족농의 개념 설정과 수정은 현실에 부응하는 것이면 서도 미국 농업에 대한 이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농의 성격은 더욱 빠르게 변질되고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족농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1944년 초에 미국 농무성은 가족경영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수립하였다. 즉, 가족경영에서 경영자는 농장의 경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도 그 경영에 조력하며, 외부로부터 적당한 사람 수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생활을 창출하여 농장을 유지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의는 농업경영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하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부업적 경영이나 겸업농은 가족경영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당시 농무성은 농장 수의 56%가 이러한 정의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으며, 1950년 중반까지 가족농의 70%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정의도 1950년에 들어 크게 수정되었다. 전업적인 가족농은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겸업농 및 부업적 임대농(농촌거주농장)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가족농의 정의를 수정하여 가족경영의 이상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자립과 가족 부양의 능력을 갖춘 전업적 경영뿐만 아니라 영세 규모의 부업농과 겸업농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고용 노동력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5인 이상의 가족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족경영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이 정의에 의해 95%의 농장이 가족경영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대규모 농장이나 법인조직 농장도 가족경영으로 불리게 되었다.

1977년에 의회는 정부가 가족경영을 지나치게 광의로 정의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가족경영과 소농을 구별하여 각각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의회는 정부의 가족농 정의가 지나치게 정책 편의적이고, 특히 1.5인 이상의 가족노동력 보유라는 조건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정부로서는 광범한 농민 계층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방침은 가족경영의 정의를 넓게 적용하여 많은 농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족경영의 실체는 변해도 가족농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농업에서 가족농장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다.

첫째, 가족농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근간으로 불리는 독립자영의 농민층이다. 따라서 가족 농장의 경영주는 농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일부분의 차지는 인정되지만 전부 차지하고 있는 순임차 농장은 가족경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가족농은 토지소유자·경영자·임노동자의 3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가족경영은 가족 노동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는 고용 노동력이 보충되어도 좋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 노동력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2. 영국

영국의 가족농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의 농업구조 변천사와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유수의 가족농주의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영국의 농업구조 변화는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아울러 도시부문으로의 농업노동력 유출은 영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주·차지인·노동자를 기초로 하여 출현한 농업의 3층 구조는 당시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산업화 과정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뒤따라야 할 모델로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 농업에서 가족농의 역할은 대체로 간과되었다. 학자들은 가족경영의 내부 관계보다는 농업 노동자 또는 지주-소작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가 농업이 불황에 빠진 19세기 말엽에 와서야 비

로소 자본주의적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족경영이나 농민소유제도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비록 19세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대농장 경영의 자본제 농업이 지배적이었지만, 농업구조는 다양하고 분산적이었다. 소규모 가족노작 농장은 19세기 중엽까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장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용인의 비율이 오늘날보다 높았지만, 이들 고용인의 다수는 동거하인(living-in servants)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농장에서도 보통 한 두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가족농의 실체였다.

1870년대 말엽, 옥수수 농업의 호황으로 인해 가족과 가족노동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Winter, 1986)는 지주와 경작자 그리고 상고(常雇) 등 농촌의 3대 그룹이 ‘새로운 전문 가족생산자(new specialized household producers)’ 형태로 수렴되었다고 보았다. 이 시대의 전문경영 농장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원되어 과중한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가적 농장들은 과중한 노동을 피하기 위하여 경종에서 가축 생산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고용노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세기 중엽의 인구총조사 기록에 의하면 대체로 농민 1인당 또는 농업종사자의 가족구성원 1인당으로 3명의 고용노동력이 있었다고 한다. 1931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비율은 2.5:1이었는데, 최근에는 1:1 이하의 수준이다.

영국의 가족농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자영농(自營農, owner occupation)의 성장이다. 1908년의 조사(Northfield Committee 추정)에 의하면, 자영농 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약 1할 수준이었으나, 1927년까지 그 규모는 3할을 상회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7할에 이르렀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일상용어에서나 학술용어에서나 가족농(family farm) 보다는 소농(small farm)이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족농은 가족경영 농장(farm as a family business)의 의미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전제된다.

- ① 가족주의: 경영주는 혈족이거나 혹은 결혼에 의한 가족

② 경 영 권: 농장의 경영권은 대체로 소유권과 일치

③ 세습주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동일 가족 내에서 다음 세대로 이양
이러한 가족농장은 영세 농장, 소규모 농장, 중규모 농장, 대규모 농장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족경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장이나 중규모 농장을 지칭한다. 여기서 소규모 농장은 일반적으로 가족노동력이 재생산 가능한 농장을 말하며, 중규모 농장은 가족 노동력을 연간 완전연소시키고 가족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농장으로서 소농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은 상층농으로 발전하면서 자본가적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농장이다.

따라서 가족경영이란 엄밀한 의미로 가족노작경영(family-worked farm)에 한정하여 소규모 중규모 농장을 지칭하고 있다. 이 가족노작경영은 2인 이상의 가족 노동력을 보유하는 농장을 말한다.

2.3. 일본

일본에서 가족경영이라는 용어는 현재도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은 농업경영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책용어로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농가’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868년 토지소유를 공인한 이후부터 농가가 농업의 생산주체로 확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에 따른 농지개혁으로 가족노작적 자작농 체제가 정착되었다.

일본 정부의 가족경영에 대한 철학은 대단하여 정책적으로 자립 가능한 농업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자립경영농가를 육성하기로 하고, 그 조건의 하나로서 근대적인 가족관계의 확립을 규정하였다. 즉, 자립경영 정책은 소득, 기술,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자주독립할 수 있는 농업경영을 실현하는 데 두어졌으며, 아울러 근대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도 부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경영에 대하여 약간 별다른 관심과 논점이 두 가지 입

장에서 각각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 하나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방향으로 농업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농업은 자본의 논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노작경영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족농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농업경영체로서 생산조직이나 법인경영체 또는 계열업체(인티그레이션) 등의 협동조직화를 중시하고, 이러한 조직경영체와 개별농가를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농의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가족농도 농업경영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직경영체와 같은 다른 경영 형태와 동일한 경쟁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농(농가)이 일본 농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미 1965년부터 농사조합법인과 같은 법인경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농가를 보완하는 농업경영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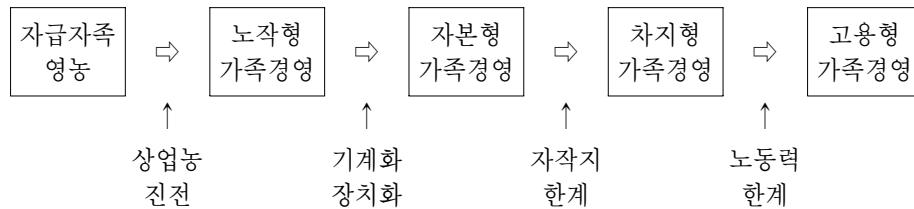
따라서 가족농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를 정책 대상으로 삼으면서 건실한 경영체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에는 자립경영농가가 제창되었고, 1970년대에는 중핵농가(中核農家)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일본은 산업화 과정에서 겸업농가가 증가함으로써 소득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농업경영의 자립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1990년대 들어 정책 대상을 판매농가와 자급농가로 구분하고, 농업경영을 전문화하고자 하는 농가를 ‘인정농업자’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2.4. 각국 동향에 의한 시사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족농은 농업의 발전과 함께 역사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 각국마다 가족농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소위

그림 2-2. 가족농의 성격 변화 경로



‘이상적인 가족농’의 변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가족농 중심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농의 성격 변화는 바야흐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노동력이 쇠퇴하는 반면에 고용노동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장에 토지 및 농업생산이 집중되고, 자작농의 감소와 함께 대규모 농가도 차지에 의한 규모 확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영세농·소규모 농가는 농외수입 비중을 높이면서 겸업농가로 전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가족농의 이상이었던 노작경영의 상당수가 몰락 내지는 농기업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가족농을 보완하는 영농협력조직이 대두되어 미국에서는 농업경영관리회사(farm management service) 및 영농 서비스회사가 노작경영을 대행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농기계이용조직(Maschinenringe), 일본에서는 청부경작이나 집락영농(集落營農) 등과 같은 형태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족경영은 내부적인 변질이 문제로 지적되기는 하면서도, 각국마다 가족농에 대한 동경과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단지 농업인 자신만의 동경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통된 인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농업은 대규모 기업농 중심이며, 이것은 그들이 이상으로 삼아왔던 가족경영과는 점점 괴리되어가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가족경영의 정의를 몇 차례 수정하면서 가능한 한 다수의 농업경영을 가족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왜 이처럼 무리하게 정의를 수정하면서 가족경영의 명칭으로 대다수의

농가를 포함하려고 하는가? 가족경영의 실체로부터 분리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족경영을 농정의 근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각국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가족농의 논리 및 철학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만 최근의 시장개방 시대에서 자국 농업의 주된 경영주체인 가족농을 상당 기간에 걸쳐 유지시켜야 하는 과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래의 가족농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업농장의 증가도 자본제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를 모방한 협업경영이 각국에 산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로서 프랑스의 공동경영집단(G.A.E.C.), 대만의 협업농장,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등이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가족농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용인해야 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종래의 가족농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업경영 및 법인경영이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3. 우리나라 농가의 특징

3.1. 농가의 정의

일반적으로 농가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송녕 국어사전을 보면, 농가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또는 그러한 집”으로서 ‘생산 단위(생업) + 가구 단위(세대)’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가족에 대해서는 “혈연으로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로는 혈연집단으로서 농업생산의 단위가 되는 것을 농가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²

이러한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법률적 정의와도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법률적인 농가의 정의는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후에 제정된 각종 법령에서도 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가 정의가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법 제3조에서 “농가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인 사회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농가가 ‘가족 단위(직계) + 생계 단위(주업, 특히 경종 농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주업(主業)이란 가주 또는 동거가족 중 어느 일원이라도 노력의 반 이상으로써 직접 농경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경을 지도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 2조 1항), 합법적 사회단위란 가주와 사실상 동거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 2조 2항).

농지개혁법의 정의는 본래 농지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농지의 분배를 위한 소유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지개혁 과정에서 분배받은 농지가 농가의 가산(家産)으로 상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농지개혁 사업을 통하여 농지는 농가의 경영주에게 분배되지만, 일단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서 후계자에게 상속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 세대에는 경작 농지에 의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경영이었으나, 자식 세대에 와서는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영세소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 때문에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이 변질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 때문에 농지소유에 관한 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해 왔다. 그중에서도 농지매매증명제도는 농지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농가의 구성원을 전제하였다. 즉,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농가 가구원이거나 혹은 가족 단위로 6개월 이상 농

² 농가의 정의에 관해서는 김정호,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영농하고자 하는 가구원에 한정되었다.³

한편, 이에 근거한 농지보전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농지를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준농가(準農家)를 명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준농가란 개별농가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이다.

표 2-1. 법률상 농가 정의의 변화

관련법률	농가 정의의 내용
농지개혁법 (1949)	농 가 :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
농지보전법 (1972)	농 가 :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준농가 :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 단체, 후생단체 등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1990)	농어민의 기준 ①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묘목을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 ⑤ 신탄 생산자 ⑥ 어업 경영(종사)자
농업농촌기 본법 (1998)	농업인의 기준 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³ 농지매매증명제도는 농지개혁 이후 계속 유지되다가 1996년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로 대체되었다. 이는 사전허가를 사후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의미이다.

그 후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어민의 정의가 설정되었으며, 이 규정을 이어받아 1998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의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첫째,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둘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셋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농가 정의는 농지소유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종농업(논, 밭, 과수원 경영)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초지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농지법상의 농가’는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적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계적인 농가의 정의는 농업총조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세계농업총조사(약칭 ‘농업센서스’)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반 준비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1960년에 처음으로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 대상이었던 농가는 농지제도에서 말하는 농가의 개념으로 “경지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를 지칭하였다. 또한 이를 농업사업체로 칭하고, 그 법적 형태를 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농가 개념은 1970년의 농업총조사에서 대폭 보완되었다. 1970년 조사에서는 조사일 기준으로 ①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고등원예 특용작물 각각 3a 이상, 과수 묘목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소, 젓소, 고기소를 각각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돼지, 면양, 산양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⑤토끼 40마리 이상, 가금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⑥꿀벌 5통 이상 치는 가구 ⑦누에씨 12g 이상 소잠하는 가구 ⑧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되는 가구 ⑨가구원 중 연간 농업노동 일수 90일 이상 동일인이 계속 30일 이상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 등에 해당하면 농가로 간주하였다.

1980년의 농업조사에서는 1970년 조사 때에 정의된 농가 중에서 “복합

경영한 농업수입 1만원 이상 되는 가구”를 “복합 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규정한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로 고치고,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를 삭제하였다.

1990년도 농업총조사에서는 1980년의 농가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 여기서 농가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 농가는 다시 개인농가 및 준농가로 분류하였다. 그간 농업센서스에서 조사되는 농가는 개인농가를 의미하였으나 1990년부터는 준농가를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0년과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 정의를 더욱 단순화하여 ①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약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하였다. 다만,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 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의 농가 통계에서는 농업사업체, 즉 ‘농업경영자+농업종사자’의 가구 단위를 독립적인 농업 경영의 단위로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 농가의 성격 변화 개요

농가의 경제사회적 기능은 ‘가(家)’라고 하는 사회집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전부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연구에서는 농가가 농업 생산을 위하여 편성된 사회적 집단의 단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농가가 사회 집단이라는 속성 때문에 거기에는 집단이라고 하는 규범이 있게 마련이고, 남녀노소라는 구별을 가지고 집단의 질서가 형성된다. 이 남녀노소 혹은 직계 가족이란 구별은 통상적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가계(家系)의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아가

그 규범이 자원 부존의 상황이나 생산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가족 구성 속에서 가족 협업 내지는 가족 분업의 체제를 형성하기도 하고, 더욱이 토지 소유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자작농적 가족경영을 성립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작농적 가족경영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변화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족 부양력이 극단적이고 급속하게 불균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의 단위와 경영 및 노동의 최적 단위가 크게 괴리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가족 구성이나 가족 협업의 체제 및 토지 소유 등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가족경영은 소유와 경영 그리고 노동이 일치하는 경영의 형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家)’를 단위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보면 매우 애매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은 경영주(호주 또는 세대주)가 가지고 있으며, 노동은 경영주와 그의 처 및 자식들이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기서 경영주는 이들을 고용하는 셈이며, 이러한 가족 질서를 바탕으로 농가가 존속된다.

가족경영에서 가족 노동력을 자가 고용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소유, 경영, 노동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영속성의 측면에서 개인 경영이 집단 경영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협업경영에서 혈연적인 후계자가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인적 자원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은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기능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단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까지도 경영 내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유리성이 있다.

셋째는 타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배제할 수 있고, 또

한 고용 계약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족 노동력의 수요 측면에서의 유리성이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가족 노동력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리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전통적인 가족농, 즉 자작농적인 가족노작 농업경영의 성격은 점차 변질되면서, 가족과 약간의 고용(계절 혹은 주년)을 도입한 전업적인 가족경영이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경영은 완전한 자작농이 아니며, 대규모 전업농가일수록 임차지를 다량 도입한 자작농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자의 인식은 가계(소비)를 위하여 경영(생산)한다는 전통적인 생각과 크게 괴리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가족경영이라는 틀에서가 아니라 경영과 가계를 분리시킨 형태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족농의 특질로서 자급적 생산이 필요조건으로 일컬어지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농에서 보듯이 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업적인 가족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급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역시 농업경영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농가의 속성과 기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응하는 농업경영 단위인 동시에, 개별경제의 측면에서는 ‘경영’이라는 생산 단위와 ‘가계(家計)’라는 소비 생활의 단위이다. 가족경영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그 속성상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은 경제주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경제 주체로서의 농가의 기능은 크게 나누어 국민경제적인 기능과 사경제적인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민경제적인 기능은 국민 경제의 구성원으로서 농가라는 조직이 갖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가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주체로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단위인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구를 형성하여 농촌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다면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또한 국민경제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기초적인

조직 단위로서 그 기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에도 관련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경제적인 기능은 위와 같은 사회적 및 경제적 조직체로서 역할하기 위한 사경제적인 측면의 안정성 확보이다. 이를 위하여 농가는 물질적 안정과 내면적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물질적 안정이란 농업생산 및 재산의 유지, 가사 노동, 가계 관리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

또한 농가의 내면적 안정은 가족애의 교류 및 위안, 문화의 향유, 제사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 다만, 위의 두 가지 측면은 일반적으로 상호동시 추구적인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농업생산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 안정이 추구하고, 이어 부수적으로 내면적 안정 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사회적인 성격을 통계 지표를 통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농가는 협소한 국토와 경지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인구 그리고 아시아 몬순기후를 바탕으로 벼농사 중심의 영세한 농업경영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노작적 자작농’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봉건지주제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여 1957년 경에 비로소 농지개혁사업이 마무리되고 자작농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과 고지가의 영향으로 자작농은 위축되고 임차지 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농가 성격을 조감하면 <표 2-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1960년과 2005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농가 수와 농업종사자 수 및 가구원 수는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전체 경지면적은 약 20% 정도 감소하여 호당 경지면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 농가 수의 빠른 감소에 비하여 경지의 감소 속도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호당 경지면적이 증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자작지 면적은 늘지 않고 임차지에 의하여 경영규모가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직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잔류하여 농업의 과잉취업 상태와 고령화를 초래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농과 핵가족화에 따라 농가의 가구원은 1960년의 호당 6인 이상 수준에서 2005년에는 3인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농업종사자와 경영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경제는 1990년대 초까지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될 만큼 경영수지가 호전되었으나, UR 협상 타결과 시장개방 진전으로 농가교역조건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이다. 농업소득 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 비중은 미미하나마 증가해 왔다.

표 2-2. 농가의 주요 지표 변화

연도	총농가 수		가족 구성		호당 경지면적			농가소득	
	총호수	전업농가비율	가구원	농업종사자	경영지	자작지	임차지비율	총액	농외소득비율
	천호	%	인	인	ha	ha	%	천원	%
1951	2,184	89.2	-	-	0.90	0.83	8.1	-	-
1960	2,349	90.7	-	-	0.86	0.74	13.5	-	-
1965	2,507	90.8	6.31	3.15	0.90	0.75	16.4	112	20.5
1970	2,443	67.7	5.81	2.91	0.93	0.77	17.6	256	24.2
1975	2,285	80.6	5.57	2.86	0.94	0.81	13.7	873	18.1
1980	2,155	76.2	5.02	2.49	1.02	0.80	21.3	2,693	34.8
1985	1,926	78.8	4.42	2.48	1.11	0.77	30.5	5,736	18.5
1990	1,767	59.6	3.77	2.20	1.19	0.75	37.4	11,025	25.8
1995	1,501	56.6	3.23	2.08	1.32	0.79	42.2	21,803	31.8
2000	1,383	65.2	2.91	2.16	1.37	0.77	43.6	23,072	32.2
2005	1,273	62.6	2.70	1.91	1.43	0.87	39.1	30,503	32.4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는 사회적 단위 및 농업경영의 단위이며, 경제주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와 건실한 가족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가의 인구와 가족 구성은 농업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양 능력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농가인구 및 경영주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후계자 보유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영승계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가의 가족 구성과 세대 형태, 농업경영주의 성격, 가구원의 취업 상태, 그리고 농업후계자 보유 여부 등이 현재 및 장래의 농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1. 농가인구의 변화와 전망

1.1.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

인구 분석의 주된 관심사는 성(性)과 연령 구조이다. 즉 현대사회가 점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유소년 인구의 감소 및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에 대한 관심도 양보다는 질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생산성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고령 인구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령화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농가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조는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양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도 의미를 가진다.

먼저, 농촌가구와 도시가구를 비교하여 보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는 급속한 신장세를 기록하여 도시지역의 인구는 1960~2005년에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촌 지역은 1960년대 초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 추세로 반전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에서 1960년과 2005년의 도·농 인구의 연령 구조를 비교해 보면, 1960년에는 도·농가의 연령 구조가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에서 10세 미만의 유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고 청·장년층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는 농촌의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 농촌 지역이 인구 고령화가 고착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유년층을 포함한 49세 이하 전 연령층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됨을 보여 준

표 3-1.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천명, %

연령	연도	1960년		2005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9		28.0	29.9	12.0	11.0
10~19		22.2	20.3	14.4	11.6
20~29		17.9	16.4	16.5	11.6
30~39		13.5	11.3	18.2	14.4
40~49		9.0	8.8	17.6	14.9
50~59		5.3	6.6	10.7	12.0
60~69		2.7	4.3	6.5	12.5
70 이상		1.4	2.4	4.3	1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총수(천명)		7,000	17,992	38,338	8,704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

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는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농업 노동력 확보는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가의 인구 구성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성별 인구 구성을 보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많으며, 1990년 50.8%에서 2005년 51.2%로 미미하나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성별 인구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남자 인구는 1990년에는 10~19세가 22.3%로 최빈층을 형성하였으나, 1995년에는 50~59세가 16.6%로 최빈층을 이루고 있으며, 2005년에는 60~69세가 21.0%로서 최빈층이 되어 있다. 또한 여자 인구도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10대가 최빈층(20.8%)을 형성하였으나, 1995년에는 50대가 최빈층(19.1%)을 이루고 있으며, 2005년에는 60대가 최빈층(23.2%)이 되어 있다.

표 3-2. 성별 농가인구

단위: 인, %

연도 성별	1990		1995		2000		2005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 체	6,661,322	100.0	4,851,080	100.0	4,031,065	100.0	3,433,573	100.0
남 자	3,278,764	49.2	2,372,999	48.9	1,970,989	48.9	1,676,592	48.8
여 자	3,382,558	50.8	2,478,081	51.1	2,060,076	51.1	1,756,981	51.2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표 3-3. 연령별 · 성별 농가인구(남자)

단위: 인, %

연도 연령	1990		1995		2000		2005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전 체	3,279천명	100.0	2,373천명	100.0	1,971천명	100.0	1,677천명	100.0
0~9세	347,157	10.6	169,703	7.2	137,491	7.0	96,231	5.7
10~19세	730,984	22.3	394,667	16.6	238,650	12.1	165,164	9.9
20~29세	462,194	14.1	328,688	13.9	239,437	12.1	160,700	9.6
30~39세	328,035	10.0	237,085	10.0	187,181	9.5	138,612	8.3
40~49세	366,629	11.2	279,190	11.8	255,000	12.9	216,360	12.9
50~59세	513,061	15.6	393,748	16.6	310,540	15.8	281,596	16.8
60~69세	345,710	10.5	368,640	15.5	392,891	19.9	351,913	21.0
70~79세	153,174	4.7	166,246	7.0	173,334	8.8	222,596	13.3
80세 이상	31,820	1.0	35,032	1.5	36,465	1.9	43,420	2.6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3-4. 연령별·성별 농가인구(여자)

단위: 인, %

연령 연령	1990		1995		2000		2005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전 체	3,382,558	100.0	2,478,081	100.0	2,060,076	100.0	1,756,981	100.0
0~9세	323,332	9.6	149,453	6.0	120,914	5.9	85,827	4.9
10~19세	703,053	20.8	389,501	15.7	223,746	10.9	145,655	8.3
20~29세	347,523	10.3	245,559	9.9	177,746	8.6	131,635	7.5
30~39세	333,874	9.9	227,643	9.2	164,941	8.0	109,238	6.2
40~49세	420,410	12.4	307,700	12.4	276,597	13.4	232,235	13.2
50~59세	597,922	17.7	473,254	19.1	365,827	17.8	319,267	18.2
60~69세	389,890	11.5	421,840	17.0	453,054	22.0	408,355	23.2
70~79세	184,343	5.4	182,412	7.4	201,217	9.8	245,625	14.0
80세 이상	82,211	2.4	80,719	3.3	76,034	3.7	79,144	4.5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이러한 농가의 인구 구조를 유소년 인구(0~14세), 청장년 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등 3대 연령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소년 인구 비중의 감소, 청장년 인구 비중의 점진적 증대,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대 등의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부르고 있는데, 농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00년에 21.7%에서 2005년에는 29.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하여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19년이 소요된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15년이나 소요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의 고령화 수준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05년 전국 평균 고령화지수보다 5배 이상인 298,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보다 3배인 47.6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 약 47명이 고령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 사정이 불리한 상황에서 부양 능력도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수준은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3-5.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분포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 계	6,661,322	100.0	4,851,080	100.0	4,031,065	100.0	3,433,573	100.0
0~14세	1,370,335	20.6	680,232	14.0	458,775	11.4	335,085	9.8
15~64세	4,521,790	67.9	3,386,147	69.8	2,696,281	66.9	2,099,182	61.1
65세 이상	769,197	11.5	784,701	16.2	876,009	21.7	999,306	29.1
고령화지수	56.1		115.4		190.9		298.2	
잠재적노년부양비	17.0		23.2		32.5		47.6	

주: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1.2. 농업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농업총조사에서 농업종사자는 농가 가구원 중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농업종사기간이 있는 가구원을 말한다. 이는 또 주종사자와 겸업종사자로 구분하는데, 농업주종사자는 농업종사자 중에서 주종사 분야별 종사기간을 기준으로 농사에만 종사하였거나, 농사는 물론 농사 이외의 일에도 종사하였으나 농사종사 기간(혹은 농업수입)이 농사 이외의 일 종사기간(혹은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인구를 말한다.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같은 경향으로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력의 진입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기존 인력

34 농가의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

이 5년 단위로 최빈층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전체 농가 중에서 농업 주종사자가 있는 농가는 대체로 90% 내외로 199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90년과 1995년에는 50대가 2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과 2005년에는 60대가 23% 정도나 되어 농업종사자가 점차 노령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합 계	20 미만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69	70 ~74	75 이상
1990	4,240 (100)	277 6.5	240 5.7	246 5.8	302 7.1	311 7.3	343 8.1	426 10.0	560 13.2	534 12.6	406 9.6	298 7.0	171 4.0	127 3.0
1995	3,294 (100)	95 2.9	125 3.8	135 4.1	166 5.0	242 7.3	268 8.1	300 9.1	371 11.3	481 14.6	462 14.0	308 9.4	198 6.0	143 4.3
2000	3,572 (100)	262 7.3	20 6.2	197 5.5	155 4.3	197 5.5	260 7.3	272 7.6	307 8.6	370 10.3	457 12.8	389 10.9	236 6.6	251 7.0
2005	3,098 (100)	158 5.1	149 4.8	143 4.6	119 3.8	129 4.2	185 6.0	264 8.5	284 9.2	316 10.2	352 11.4	408 13.2	309 10.0	282 9.1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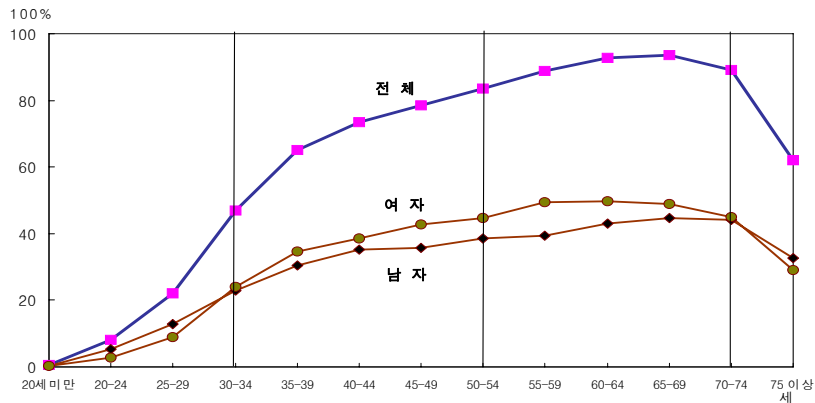
표 3-7. 연령별 · 농업종사기간별 농가 분포

단위: %

연령 연도	1990			1995			2000			2005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전 체	16.3	13.0	70.7	11.8	13.1	75.1	21.7	6.5	71.8	21.6	6.6	71.7
15~19세	5.8	0.4	0.3	2.5	0.2	0.1	6.8	0.5	0.1	4.9	0.2	0.0
20~29세	4.5	1.8	5.2	3.9	1.3	2.7	8.2	1.5	2.0	7.6	1.0	0.8
30~39세	1.5	2.1	10.8	1.5	1.9	8.9	2.1	1.1	6.6	3.0	1.2	3.8
40~49세	1.1	2.4	14.7	1.0	2.4	13.8	0.7	1.1	13.0	1.4	1.5	11.6
50~59세	1.2	2.9	21.7	1.0	2.9	22.0	0.4	0.9	17.7	0.8	1.2	17.4
60~69세	0.9	2.1	13.6	0.8	2.6	20.0	0.5	0.7	22.4	0.6	0.8	23.1
70세 이상	1.3	1.2	4.5	1.1	1.8	7.4	3.0	0.7	9.9	3.4	0.7	15.0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그림 3-1. 농가인구에 대한 농업종사자 비율(2005년)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한편, 농가인구 중에서 농업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부터 30대 중반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여 6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점차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65~69세 연령층의 93%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다가 70대 연령층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있다. 즉 50세 이상에서는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셈이며, 60대 연령층은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에서 농업종사자도 고령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문제는 농업종사자가 더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20~30대의 농가 가구원이 이러한 추세대로 앞으로 50대가 되어서도 농업에 종사하느냐가 미래 농업의 관건이 될 것이다.

1.3. 농가인구의 전망

이 절에서는 1990~2005년의 인구 변동을 기초로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농가인구를 전망하고자 한다. 인구의 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코호트 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 작업에는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구로 인구

피라미드가 널리 활용된다.

여기서도 코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농가인구를 추계하였다. 코호트 분석은 인구의 연령별 구성이 축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착안하여 시간에 따른 일정한 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에서는 그 밖의 몇 가지 가정으로 연령별 농가 인구의 이농률은 불변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등과 연계하여 증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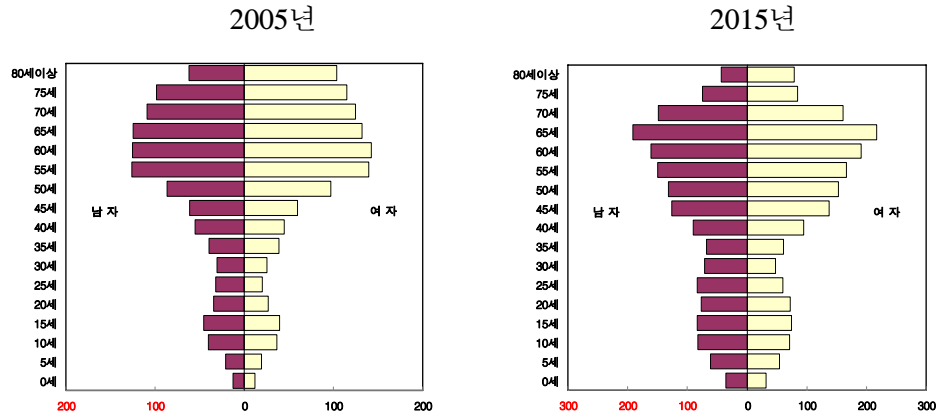
농가인구의 예측 결과를 <표 3-9>에서 보면, 2000년의 농가 인구는 403만 명인데 2005년에는 318만 명 그리고 2010년에는 23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유소년(0~14세) 인구는 2000년 11.4%에서 2010년에는 9.3%로 하락하고, 청장년 생산인구(15~64세)도 역시 2000년 66.9%에서 2010년에는 56.7%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21.7%에서 2010년에는 3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 농가인구의 코호트 시산 방법

연령대	시 산 방 법
0세	총출생자1)×0.2×(1-영아사망률)
1-4세	((총출생자×남자출생비×(1-남자아기사망률)+(총출생자×여자출생비×(1-여자아기사망률))×(0.8))
5-9세	(전기남자인구(0-4세)×(1-전기남자사망률(0-4세))+(전기여자인구(0-4세)×(1-전기여자사망률(0-4세)))-((남자이농률(5-9세)×전기남자인구(5-9세))+여자이농률(5-9세)×전기여자인구(5-9세))
10-14세	(전기남자인구(5-9세)×(1-전기남자사망률(5-9세))+(전기여자인구(5-9세)×(1-전기여자사망률(5-9세)))-((남자이농률(10-14세)×전기남자인구(10-14세))+여자이농률(10-14세)×전기여자인구(10-14세))
	중간생략
80세 이상	(전기남자인구(75-79세)×(1-전기남자사망률(75-79세))+(전기여자인구(75-79세)×(1-전기여자사망률(75-79세)))-((남자이농률(80세이상)×전기남자인구(80세이상))+여자이농률(80세이상)×전기여자인구(80세이상))

주: 총출생자수=(전기 연령대별 가임여자인구×전기 연령대별 출산율)×5개년.

그림 3-2. 농가인구 연령별·성별 추이와 전망



이러한 전망치를 <그림 3-2>의 인구 피라미드를 통하여 2015년 농가 인구 연령별 구성을 보면, 70세 계층이 최빈수를 나타내면서 50~70세 계층이 두꺼운 벽을 형성하는 ‘역삼각형’ 형태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특히 앞으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5~30세 계층의 성비 격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경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9. 농가인구 장래 추계

단위: 천명

연 도		2000	2005	2010	2015
연령·성별	합 계	4,031(100.0)	3,434(100.0)	2,941(100.0)	2,284(100.0)
	남 자	1,971	1,677	1,431	1,105
	여 자	2,060	1,757	1,510	1,179
유소년 (0~14세)	합 계	459(11.4)	335(9.8)	236(8.0)	143(6.3)
	남 자	242	178	124	74
	여 자	217	157	112	69
청장년 (15~64세)	합 계	2,696(66.9)	2,099(61.1)	1,704(57.9)	1,272(55.7)
	남 자	1,338	1,041	855	637
	여 자	1,359	1,058	849	636
노년 (65세 이상)	합 계	876(21.7)	999(29.1)	1,000(34.0)	869(38.0)
	남 자	392	457	454	393
	여 자	484	542	547	476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2. 농가의 가족 구성 변화

2.1. 가구원과 가족 구성

일반적으로 가족(family)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하여 형성된 관계로서 주거 단위를 넘어서 유지되는 반면, 가구(household)는 물리적 생활공간을 함께 하는 주거 공동체로 그 구성원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구의 구성원은 대부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특히 농가의 구성원은 거의 가족으로 대를 이어 왔다.⁴

즉, 핵가족의 생애주기는 두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가구원 수가 증가하다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하여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핵가족의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부부의 사망으로 한 가족의 생애주기가 마감된다. 따라서 핵가족 농가의 가구원 수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증감하게 되며, 가장(家長)의 연령이 40대 중반에 가구원 수가 최대가 되다가 그 이상 높아지면 가구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자녀들은 무차별적으로 분가를 떠나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농가의 전 계층에서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가족 구성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세대 가구가 많으며, 농촌지역은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로 이루어진 핵가족 그리고 3세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농촌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던 직계가족은 현저히 감소하고 핵가족 유형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핵가족 하에서 농가의 가구원 수는 경영주가 노령화할수록 급속히 감소하게 되며, 농가가 노령화하여 독인가구로 변할 때 대부분의 농가는 노동력을

⁴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에 관해서는 김두섭 외, 『한국의 인구』(제8장 가족과 가구), 통계청,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상실하게 되어 농업을 중단하고 비농가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의 가족 형태가 점차 독신가구나 핵가족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 및 경제단위로서 농가의 지속성이 취약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가구원 수는 도시의 가구원 수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80년 이후 농가의 가구원 수가 도시가구에 비하여 적은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그중에서도 노부부 가족과 독신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거 가족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1990년 이후 농가의 가구원 수가 도시가구에 비하여 빠르게 감소하여 가구원 수가 역전되었다. 즉, 199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3.77인이고 도시가구는 3.78인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농가의 가구원 수는 2.7인으로 15년간 1.07인이 감소한 반면, 도시가구의 가구원 수는 2.93인으로 0.85인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를 보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구원 1인의 단독 가구는 1990년의 12만호(6.7%)에서 2005년에는 18만호(14.8)로 증가하였으며, 2~3인 가구도 1990년 72만호(40.6%)

표 3-10. 도시와 농촌의 가구원 구성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단위: %

연도	구분	가구형태	전체	거주지역	
				도시	농촌
1990년	1인 가구		2.6	2.5	3.0
	부부 가구		5.2	4.3	8.0
	2세대 가구		71.0	74.3	61.5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기타 일반 가구		2.4	2.8	1.2
2005년	1인 가구		6.9	6.5	8.8
	부부 가구		9.9	8.1	18.1
	2세대 가구		68.4	71.3	55.3
	3세대 이상 가구		11.7	11.0	15.0
	기타 일반 가구		3.1	3.1	2.9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

에서 2005년에는 77만호(60.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의 안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원 4인 이상 농가의 비율은 1990년 52.7%에서 1995년 38.9%, 2000년 30.7%, 2005년 24.6% 등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농가 형태로 유지되어 온 2세대가구 이상의 농가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핵가족화 진전에 따라 1세대가구(부부가구) 및 독신가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업경영의 축소 및 경영 존속의 문제로 직결된다.

농가의 세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세대별 구성을 분류한 것이 <그림 3-3>이다. 여기서 보면 가구원 수가 1인인 독신 가구는 14.8%이며, 부부 세대가 39.4%를 차지하고, 이러한 독신과 부부를 포함하는 1세대 가구 형태가 55.7%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세대 가구가 34.0%, 3세대 가구가 11.0%, 그리고 4세대 가구가 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농가 형태로 유지되어 온 2세대 가구 이상의 농가는 ‘부부+자녀’가 22.5%, ‘경영주+자녀’가 3.5%, ‘부부+양친’이 3.7% 등이다. 또한 ‘부부+자녀+양친’으로 구성된 3세대 가구는 5.9%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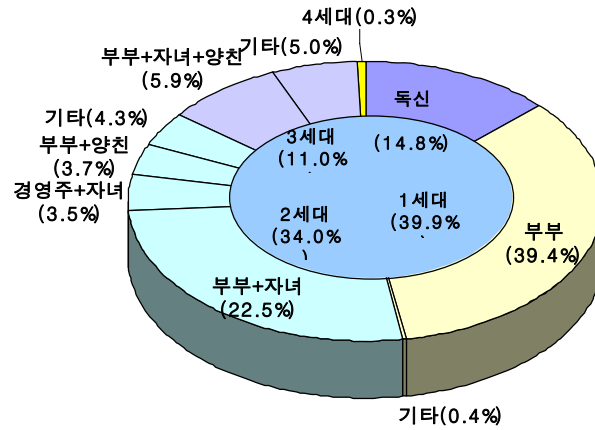
그렇다면 경영주 연령에 따라 가족 구성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2005년도 농업총조사를 분석해 보면, 50대 경영주까지는 ‘부부+자녀’ 형태의 2세대 가구가 가장 많고, 60대는 부부 세대가 42.8%로 가장 많

표 3-11.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

연도 가구원수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033	100.0	1,500,745	100.0	1,383,468	100.0	1,272,908	100.0
1인	118,735	6.7	150,140	10.0	181,255	13.1	188,091	14.8
2~3인	718,010	40.6	768,027	51.2	778,120	56.2	771,182	60.6
4~6인	807,220	45.7	528,376	35.2	394,287	28.5	294,961	23.2
7~9인	119,999	6.8	53,105	3.5	29,133	2.1	18,251	1.4
10인 이상	3,069	0.2	1,097	0.1	673	0.0	423	0.0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그림 3-3. 세대 형태별 농가 분포(2005년)



으며, 70대는 독신 세대가 41.6%로 가장 많다. 이와 같이 경영주의 고령화와 함께 가구원이 이탈하면서 농가의 가구 형태가 점차 부부 혹은 독신 가구로 변모해 가는 경향이다.

한편, <표 3-13>에서 전·겸업별로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자 수를 보면, 전업농가에 비하여 겸업농가가 농업 종사자 수 모두 많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 종사자는 전업농가에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5

표 3-12. 경영주 연령별 가족구성 분포(2005년)

단위: 호, %

연령	독 신		부 부		부부+자녀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30세 미만	271	0.1	154	0.0	594	0.2
30~39세	2,040	1.1	1,528	0.3	18,196	6.4
40~49세	8,613	4.6	19,857	4.0	89,025	31.1
50~59세	24,378	13.0	97,047	19.3	97,937	34.2
60~69세	74,599	39.7	215,035	42.8	59,427	20.8
70세 이상	78,190	41.6	168,562	33.6	21,188	7.4
합 계	188,091	100.0	502,183	100.0	286,367	100.0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42 농가의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

년 수치를 보면 겸업농가의 농업종사자가 2.01인으로 전업농가의 1.85인에 비하여 0.2인 정도 많다. 또한 <표 3-14>에서 영농 형태별로 보면, 수익성이 높다고 하는 화훼, 축산, 과수 등에 농업종사자가 많이 존재한다.

표 3-13. 전·겸업별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자 수

단위: 인

전·겸업	1990		1995		2000		2005	
	가구원	농업종사자	가구원	농업종사자	가구원	농업종사자	가구원	농업종사자
전 체	3.77	2.40	3.23	2.20	2.91	2.02	2.70	1.91
전업농가	3.37	2.27	2.76	2.06	2.51	1.95	2.29	1.85
겸업농가	4.36	2.57	3.83	2.38	3.66	2.16	3.38	2.01
1종겸업	4.32	2.68	3.71	2.44	3.56	2.23	3.18	2.09
2종겸업	4.40	2.46	3.96	2.32	3.75	2.09	3.48	1.96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3-14. 영농 형태별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자 수

단위: 인

영농형태	1990		1995		2000		2005	
	가구원 수	농업종사자	가구원 수	농업종사자	가구원 수	농업종사자	가구원 수	농업종사자
전 체	3.77	2.40	3.23	2.20	2.91	2.02	2.70	1.91
논 벼	3.76	2.41	3.16	2.18	2.86	2.02	2.66	1.90
과 수	4.03	2.52	3.43	2.32	3.10	2.10	2.82	1.98
채 소	3.75	2.37	3.26	2.19	2.95	2.07	2.74	1.93
특 용	3.74	2.39	3.24	2.24	2.94	2.02	2.81	1.96
화 훼	4.07	2.34	3.84	2.27	3.64	2.16	3.31	2.01
진 작	3.39	2.22	2.82	1.96	2.58	1.83	2.44	1.76
축 산	4.05	2.38	3.54	2.28	3.35	2.09	2.96	2.01
기 타	3.64	2.17	3.10	1.99	2.97	1.98	2.66	1.80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2.2. 고령농가의 특성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보장적인 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노인 인구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농가 내에서의 위상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3-15>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동거하는 농가의 특성에 대한 로짓(Logit) 분석 결과이다. 로짓 모형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반응 범주를 취하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그 분포를 로지스틱(logistic)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대체로 경영주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전업농가일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영농승계자를 보유할수록 고령자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농가에서 고령농업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5. 고령자와 동거하는 농가 특성의 로짓 분석

항 목		2000		2005	
		파라미터	표준오차	파라미터	표준오차
경영주 성별	남자, 여자(기준)	0.379	0.008	-2.409	0.009
경영주 학력	무학(기준)~대학원	0.056	0.003	0.176	0.006
영농 경력	연수(경영주)	0.003	0.0003	0.032	0.000
경영 형태	전업, 겸업(기준)	-1.338	0.005	-0.288	0.004
영농 규모	평(논)	4.01E-05	7.12E-07	1.24E-05	5.20E-07
영농승계자 유무	있음, 없음(기준)	2.247	0.010	0.013	0.011
상수		1.995	0.019	-1.445	0.012
Log Likelihood		-562936		1443053	
관측치		1,078,442		770,752	

주: 종속변수는 고령자 동거 유무로 구분(동거 기준).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3. 농업경영주와 경영 승계의 전망

3.1.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앞 절에서 농가가 점차 핵가족화되는 경향을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상속 농가의 경우에 농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고갈로 농업경영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를 시계열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경영주와 후계자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유추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먼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은 1990년 31.3%에서 1995년 42.3%, 2000년 51.1% 2005년 58.3% 등으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1995년까지 50대가 최빈층을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60대로 상향이동하고 있다.

이들 고령 농업경영주들은 판매 목적보다는 자급적 영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통계에서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으로 판매액 1천만

표 3-16.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호, %

연도 연령별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033	100.0	1,500,745	100.0	1,383,468	100.0	1,272,908	100.0
20세 미만	451	0.0	94	0.0	43	0.0	0	0.0
20~29세	36,268	2.1	12,217	0.8	7,227	0.6	2,382	0.2
30~39세	221,177	12.5	134,201	8.9	84,246	6.1	40,010	3.1
40~49세	372,508	21.1	272,494	18.2	237,737	17.2	185,849	14.6
50~59세	583,964	33.0	447,256	29.8	348,067	25.2	302,852	23.8
60~69세	402,633	22.8	444,563	29.6	479,485	34.7	430,473	33.8
70세 이상	150,032	8.5	189,920	12.7	226,663	16.4	311,342	24.5

원 미만의 농가는 약 57만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반면, 경영주 연령과 상업적 경영규모(판매액)의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향후의 존속 가능성을 보면, 경영주 연령 60세 미만이며 농산물 판매액 1천만원 이상을 실현하는 농가 수는 약 23만명으로 전체 농가의 18%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농업 경영주의 연령에 비추어 앞으로의 농가 수를 얼마나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2005년도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기초로 코호트 분석(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여 농가의 존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005년의 농가 수는 127만3천호로서 이는 농업경영주의 수와 일치한다. 따라서 농업경영주의 연령 분포에 기초하여 코호트 분석법으로 연령별 농가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2010년의 농업경영주 수(=농가 호수)는 112만 명, 2015년에는 8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17. 경영주 연령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2005년)

구 분	영세농가	소규모농가	중·대규모농가	합 계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3,000만원 이상	
40세 미만	24,903(2.0)	9,917(0.8)	7,572(0.6)	42,392(3.3)
40~59세	272,583(21.4)	125,920(9.9)	90,198(7.1)	488,701(38.4)
60세 이상	571,831(44.9)	137,062(10.8)	32,922(2.6)	741,815(58.3)
전 체	869,317(68.3)	272,899(21.4)	130,692(10.3)	1,272,908(100.0)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3-18. 연령별 농업 경영주의 예측

연 도	단위: 명						합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00	7,270	84,246	23,7737	348,067	479,485	226,663	1,383,468
2005	2,382	40,010	185,849	302,852	430,473	311,342	1,272,908
2010	1,140	22,140	125,560	261,550	428,070	279,880	1,118,350
2015	530	8,390	58,890	207,400	367,780	239,990	882,980

주: 총량은 KREI-ASMO에 의한 분석 결과, 연령별 분포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분석 결과의 비율을 적용함.

3.2. 영농승계자의 실태와 전망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란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중에서 현재 농업 경영주의 대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하며, 이는 다시 가구원으로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승계자와 경영주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비동거 승계자로 구분된다.

농업총조사에 의한 영농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 1995년 13.1%, 2000년 11.0%, 2005년 3.5%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농가의 경영 승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계자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후계자 비율이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졸 학력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고무적이다. 또, 영농승계자 보유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를 보면, 성장작목인 원예와 축산 분야에 후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영농 승계자는 농가의 농업경영을 존속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개별 농가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영농 승계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영농 승계자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는 2000년도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와 관련되는 지표를 선정하여 요인의 관계를 로짓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표 3-19. 영농승계자 거주지 및 연령별 농가

단위: 호, %

연도 연령별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033	100.0	1,500,745	100.0	1,383,468	100.0	1,272,908	100.0
영농승계자가 없는 가구	1,477,513	83.6	1,304,315	86.9	1,233,015	89.1	1,227,745	96.5
영농승계자가 있는 가구	289,520	16.4	197,161	13.1	151,503	11.0	45,163	3.5
15 ~ 19세	67,389	3.8	25,348	1.7	16,237	1.2	2,612	0.2
20 ~ 29세	158,276	9.0	85,237	5.7	54,386	3.9	12,385	1.0
30세 이상	63,855	3.6	86,576	5.8	80,880	5.9	30,166	2.4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3-21>에서 영농 승계에 대한 로짓 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구원 수가 많은 농가일수록, 경지규모가 크고 농축산물 판매액이 많은 대농일수록 후계자가 많으나, 전업농가보다는 겸업농가가 후계자를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건실한 가족 구성원을 보유한 농가를 기본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통하여 후계자가 취농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영농형태별 영농승계자 보유농가 수 및 비율

단위: 호, %

연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289,520	16.4	197,161	13.1	150,453	10.9	45,163	3.5
논 벼	206,800	16.8	111,089	13.5	91,995	11.7	23,697	3.7
과 수	21,752	20.3	24,009	16.7	18,957	13.2	7,131	4.9
채 소	23,827	13.8	28,250	11.5	20,150	8.5	6,687	2.9
특용작물	6,216	16.1	4,948	10.8	3,091	8.2	838	3.0
화훼	559	8.7	1,093	10.9	784	9.7	468	4.6
전 작	17,509	15.3	8,498	12.2	7,564	8.2	2,892	2.3
축 산	11,968	13.5	18,653	12.0	7,473	10.4	3,348	4.1
기 타	889	11.2	621	11.4	439	9.7	102	2.9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3-21. 영농승계자 보유에 대한 로짓 분석

항 목		2000년		2005년	
		파라미터	표준오차	파라미터	표준오차
전·겸업형태	전업(기준), 겸업	-0.804875	0.010631	-0.52505	0.01109
가구원수		0.564021	0.003389	0.53364	0.00432
농업종사자비율	농업종사자/가구원	0.081460	0.023232	1.47096	0.03000
경영주 연령		0.052730	0.000468	0.04821	0.00055
경영주 학력	고졸 이상(기준), 고졸 이하	0.369323	0.012721	-0.02075	0.01279
경지면적	논 면적 + 밭면적	3.71E-05	1.01E-06	1.68E-05	7.22E-07
영농형태	벼농사(기준), 기타	-0.067440	0.009515	0.05090	0.01019
농축산물판매액	3,000만원 이상(기준)	0.286243	0.017391	0.66903	0.01584
상수항		-7.250562	0.035783	-8.95110	0.04710
log likelihood		-204,144		-359,417	

주: 종속변수는 영농후계자 유무로 구분(보유농가 기준).

농업경영의 자립은 농정의 목표이며, 이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는 농업의 효율성 및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경영규모 확대의 목표는 자립경영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과 전망은 농가계층 분화의 추이를 토대로 시계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농가의 경영규모별 계층 분화를 분석하는 것은 규모 확대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제도나 경영정책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분석 과제이다.

농업경영의 규모화는 대농 중심의 생산구조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농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영세농 문제를 야기한다. 농가의 양극화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경쟁에서 탈락하는 영세농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을 필요로 한다.

1. 농가의 자립경영 규모

1.1. 자립경영의 개념과 기준

농업의 ‘자립경영’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8년에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의 베르그만(D.R.Bergmann)이 유럽생산성본부(Europe Pro-

ductivity Agency)에 발표한 논문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농장’에서 ‘viable units’ 혹은 ‘viable fa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다.⁵ 이 논문에서 베르그만은 프랑스 농업의 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농업 정책의 기본 목표가 “경제적으로 존립 가능한 농업경영의 단위(economically viable units in agriculture)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유럽 각국은 자립경영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별경영이 자력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즉 생산기반 정비와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였다.⁶ 그중에서도 비교적 농업 선진국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는 대규모 가족경영(대략 10~20ha 이상)이 상정될 정도로, 자립경영 육성이 단지 국내 농업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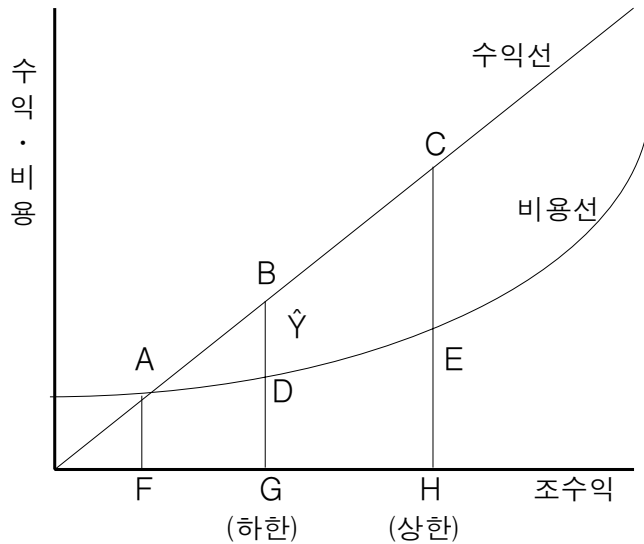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자립경영의 개념은 초기에는 농업의 저소득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듯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각국의 농업구조개선 목표도 소득균형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 후 점차 농업소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보유 노동력만이라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완전취업 규모의 실현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2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업구조개선대책」에서 처음으로 자립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당시의 자립경영은 ①농업 노동력이 정상적인 보수를 향유하고, ②정상적인 능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1967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17조는 ‘자립 가족농의 육성’이라는 표제 하에 “정부는 경영 능률의 향상과 가족경영의 정상적인 노동 보수 및 타산업 종사자와의 소득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립 가족농을 육성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

⁵ Bergmann, D.R., “Economically viable units in agriculture- Present position and prospects”, *Fatis Review*, European Productivity Agency, Oct. ~Nov.1958, No.5~6.

⁶ 독일이 1955년에 「농업법」을, 1960년에 프랑스(농업의 방향 설정에 관한 법률), 오스트리아(식량 확보 및 경제적으로 건전한 농가의 유지를 위한 조치법), 이탈리아(농업발전 5개년계획법) 등이 농가 육성을 핵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림 4-1. 자립경영의 하한규모와 상한규모



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자립경영은 경제적 및 기술적인 자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소득균형 규모가 자립경영을 위한 경제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완전취업 규모는 자립경영을 위한 기술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균형 규모는 자립경영의 필요조건으로서 하한을 규정하고, 완전취업 규모는 충분조건으로서 상한을 규정하게 되며, 따라서 ‘소득균형규모 ≤ 자립경영규모 ≤ 완전취업규모’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자립경영의 하한 규모와 상한 규모를 통상적인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하여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횡축은 규모를 나타내며 보통 경지면적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해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조수익 규모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OP는 45도 선으로 그 높이는 조수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OR은 비용 선으로 OQ가 고정 비용을 나타내고, Q로부터의 증가분이 변동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조수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OP와 QR의 차가 되는 소득이 증가

하게 되면 어떠한 규모(여기서는 G 점)에 도달했을 때에 적정소득, 즉 도시근로자 소득과 균형을 이루는 소득 $\hat{Y}$ 가 실현된다. 물론 이러한 소득 수준 $\hat{Y}$ 가 반드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가격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경영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생기게 되면 하한 규모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영규모를 확대함에 따라서 순수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보유한 노동력 조건과 기술 수준 등의 제약으로 경영 가능한 규모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립경영의 기술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상한 규모이며, 자가노동의 완전취업에 의하여 경영 가능한 최대 규모이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는 H 점이 상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소득균형 규모 G 가 완전취업 규모 H 보다 크다면 농업경영의 자립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 자립경영의 존립 기반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1.2. 자립경영 규모의 동향

실제로 우리 농업은 1970년대까지 가족농의 자립경영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농지개혁 당시의 소유상한 3ha는 외부인력을 고용해야만 경작 가능한 경지규모였으며, 따라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농지법 논쟁에서도 농지소유 상한의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였으나, 농업기계화 부진 등 가족노동력만으로는 소득균형을 위한 경영규모 달성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자립경영 육성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농지의 소유상한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진보에 따라 농업경영의 자립을 위한 가능성과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도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단일작목에 의한 자립경영의 목표 면적을 산정한 결과, 대체로 3가지 부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시사 결과는 현재의 가격 조건과 기술 조건을 전제로 한 품목별 전업농(단일 품

목의 전문경영)의 규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립경영 시산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단일 품목으로 소득균형을 실현하고 나아가 가족노동력이 완전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작목은 벼, 낙농 등이다. 특히 벼농사의 소득균형규모는 3.5ha이고 완전취업규모는 6.1ha로 시산되어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지속적인 소득 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들 작목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적정영농규모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단일품목의 소득균형은 물론 완전취업이 어려운 작목은 감자, 콩, 마늘, 들깨, 담배 등 대부분의 경종작물이 해당된다. 즉, 현재의 기술체계 하에서 가족노동력으로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더라도 당해 작목만으로는 소득균형 실현이 곤란하므로, 생력화 기술혁신을 채용하여 규모를 늘리거나 노동력이 경합되지 않는 타 작목과의 복합영농을 통하여 경영 전체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미 완전취업을 실현하면서 소득균형 규모에 접근한 작목은 시설 원예, 양돈, 양계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익성 지속을 위한 기술 혁신과 규모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 이후의 벼농사 자립경영규모를 시산하면, 생계유지규모보

표 4-1. 주요 작목별 자립경영규모 시산(자작농, 2004년)

작 목	생계유 지규모	소득균 형규모	완전취 업규모	작 목	생계유 지규모	소득균 형규모	완전취 업규모
벼 (ha)	2.23	3.56	6.10	사 과 (ha)	0.82	1.30	0.79
쌀보리 (")	8.40	13.44	9.31	배 (")	0.94	1.50	0.67
감 자 (")	2.61	4.18	1.24	한우비육(두)	9.41	15.05	28.33
고 추 (")	1.21	1.93	0.68	착유우 (두)	9.05	14.47	14.58
마 늘 (")	1.62	2.59	0.92	비육돈 (두)	228.43	365.30	197.37
시설상추(")	0.60	0.95	0.65	육 계(100수)	583.02	932.35	979.43
" 오이(")	0.29	0.46	0.42	산란계(100수)	62.18	99.44	104.46

주: 생계유지 규모는 농가가계비(2,664만9천원) 기준, 소득균형 규모는 도시근로자 근로 소득(3,362만2천원) 기준, 완전취업 규모는 가족노동력 1.5인(월 250시간) 기준이며, 작목별 재배기간(또는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시산함.

다 소득균형규모가 크고 나아가 완전취업규모가 더 크며, 따라서 벼농사는 이론적으로 자립경영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벼농사의 자립경영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소득균형규모가 5.96ha이고 완전취업규모가 12.0ha로서 경영규모 확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벼농사 자작농의 자립경영규모 추이

단위: ha

년 도	생계유지규모	소득균형규모	완전취업규모
1980	1.88	2.06	2.69
1985	1.81	1.64	2.92
1990	2.01	2.30	4.21
1995	2.74	3.55	7.21
2000	2.37	3.14	8.44
2005	3.51	5.96	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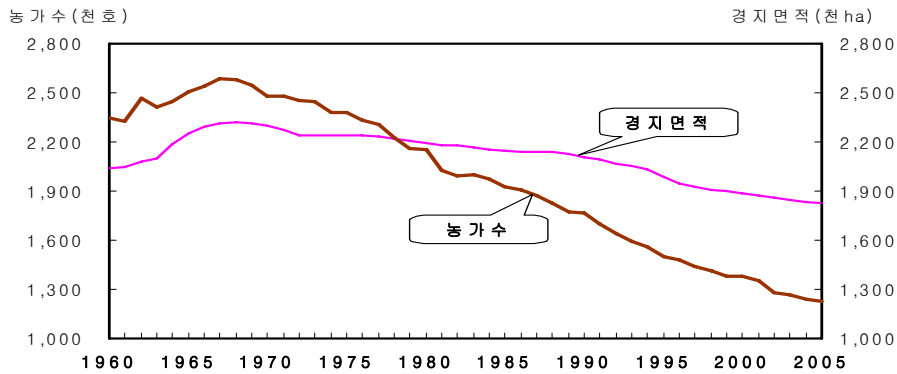
주: 생계유지규모는 농가가계비 충족, 소득균형규모는 도시근로자 근로소득과 균형, 완전취업규모는 가족노동력 1.5인(연 2,500시간) 기준. 통계청 쌀생산비통계에서 계산.

2.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 계층분화

2.1. 경지규모별 농가계층 분화

그동안 농업구조 개선을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총농가 수의 감소에 따른 호당 경영규모 확대를 상정하였다. 농지의 제약이 큰 우리나라 농업의 실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계로 보면, 농가호수는 1970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2005년까지 연평균 1.9%씩 감소하였으며, 경지면적은 1968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대략 연평균 0.6%씩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여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된 셈이다.

그림 4-2. 총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에서 작성.

이렇게 경지규모를 확대하여 대농 계층으로 이행하는 것을 ‘농가계층분화’라고 하며, 선행연구들도 그동안의 농가분화에 대하여 대략 네 단계를 밝힌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1960년까지의 양극 집중, 1980년대 초까지의 중농 집중, 1990년대 중반까지의 상향 집중,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양극 분화 등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할 정도로 분화분기점이 계속 상향이동하고 있으며, 중간규모 계층이 감소하고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경향이 명확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세농층과 대농층으로의 양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경지규모별 농가계층분화 동향

단위: %

연도	전체(비율)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 이상
1960	2,350(100.0)	42.9	30.1	20.7		6.0	0.3
1970	2,411(100.0)	32.6	34.2	18.5	8.0	5.1	1.5
1980	2,127(100.0)	28.8	35.1	20.6	9.0	5.1	1.5
1990	1,743(100.0)	27.7	31.2	20.2	11.0	7.4	2.5
2000	1,369(100.0)	32.2	27.7	16.0	9.6	8.3	6.2
2005	1,255(100.0)	36.5	26.4	22.3		7.4	7.4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에 의한 경종농가 수치임.

이러한 농가 계층분화는 경영주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령농일 수록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다.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농가의 경작규모가 커질수록 30~40대 경영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5ha 이상 규모 계층에 대해서는 농가의 절반이 40대 이하의 경영주가 경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단위: 천호, %

연도 \ 경영규모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계
1990	15 (0.8)	468 (26.5)	544 (30.8)	543 (30.7)	130 (7.3)	44 (2.5)	1,767 (100.0)
1995	16 (1.1)	417 (27.8)	432 (28.8)	418 (27.8)	123 (8.2)	70 (4.7)	1,501 (100.0)
2000	30 (2.2)	410 (29.7)	379 (27.4)	352 (25.4)	114 (8.2)	85 (6.1)	1,383 (100.0)
2005	55 (4.3)	419 (33.0)	331 (26.0)	281 (22.1)	93 (7.3)	93 (7.3)	1,273 (100.0)
1990~1995	1.25	-2.16	-4.13	-4.61	-0.95	12.36	-3.14
1995~2000	18.49	-0.33	-2.47	-3.18	-1.55	4.05	-1.56
1990~2000	10.44	-1.23	-3.05	-3.53	-1.21	9.46	-2.17
2000~2005	16.90	0.46	-2.55	-4.05	-3.63	1.99	-1.59

자료: 농업기본통계에서 계산.

표 4-5.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분포(2005년)

단위: 천호, %

연령 \ 경지규모	경지 없음	1.0ha 미만	1.0~2.0ha	2.0~3.0ha	3.0~5.0ha	5.0ha 이상	합 계
합 계	17 (100.0)	788 (100.0)	281 (100.0)	93 (100.0)	61 (100.0)	33 (100.0)	1,273 (100.0)
40대 이하	8 (47.1)	141 (17.9)	51 (18.1)	22 (23.7)	20 (32.8)	15 (45.5)	257 (20.2)
50대	5 (29.4)	150 (19.0)	63 (22.4)	27 (29.0)	20 (32.8)	11 (33.3)	274 (21.5)
60대 이상	5 (29.4)	498 (63.2)	167 (59.4)	44 (47.3)	21 (34.4)	7 (21.2)	742 (58.3)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2. 대농의 생산 집중과 전망

농가 호수의 감소와 함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계층의 분화 분기점이 상향 이동하면서 대농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3ha 이상 농가가 실수로도 미미하게 증가 내지는 감소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1970년에 3만7천호까지 증가하였다가 1985년에는 2만3천호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증가로 반전되어 1990년에 4만4천호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3ha 이상의 대농층이 2000년에는 8만5천호, 그리고 2005년에는 9만3천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영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가 수로 파악하기보다는 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훨씬 실감할 수 있다. 즉, 대규모 농가로의 농지 집중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3ha 이상 농가는 호수 비중으로는 1990년의 1.2%에서 2005년에 5.4%로 증가하였으나, 면적 비중으로는 1990년의 6.2%에서 2005년에 29.5%로

표 4-6.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 누적분포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경영규모								
논 3ha 이상	1.2	6.2	2.8	14.8	3.8	20.0	5.4	29.5
밭 2ha 이상	1.6	12.6	2.5	18.0	3.2	24.0	3.7	27.7
과수원 1ha 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14.4	46.3
시설 2천평 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10.6	42.9
연도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경영규모								
한우 20두 이상	1.1	14.1	4.4	28.6	6.5	49.9	9.0	52.8
젖소 50두 이상	1.7	8.7	6.0	18.9	26.4	54.1	40	66.0
돼지 1천두 이상	0.2	13.3	2.2	27.7	9.8	62.1	19.2	70.6
닭 1만수 이상	1.8	59.2	3.1	76.8	2.7	94.1	6.3	97.8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 시설원에 0.67ha(2천평) 이상 농가는 호수 비중으로는 1990년의 6.1%에서 2005년에 10.6%로 증가하였으나, 면적 비중으로는 1990년의 25.5%에서 2005년에 42.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경영규모 확대가 진전되면서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은 전문경영에 의한 생산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상업농의 진전으로 농산물 판매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판매 실적이 없는 자급적 농가는 12만호로 전체농가의 9.5%에 불과하다. 특히 대농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수가 5만8천호에 달하고 있다. 또,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40~50대 경영자들이 농산물 판매에 열심이고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핵심적인 경영주체로서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농가계층 분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1990년대 이후의 변화율을 연

표 4-7.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 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2005년)

단위: 천호, %

	합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전체농가	1,273 (100.0)	648 (50.9)	145 (11.4)	230 (18.1)	28 (2.2)	10 (0.8)	126 (9.9)	82 (6.5)	3 (0.3)
5천만원 이상 농가	58 (100.0)	12 (20.8)	8 (14.2)	13 (22.8)	3 (5.3)	3 (4.5)	1 (2.0)	17 (30.1)	0.2 (0.3)

표 4-8. 경영주연령별 판매금액별 논벼농가와 논면적 분포

단위: 천호, 천ha, %

연령 판매금액	40세 미만		40~59세		60세 이상	
	농가수	논면적	농가수	논면적	농가수	논면적
합 계	27(2.9)	35(3.7)	348(37.0)	451(47.6)	563(60.1)	462(48.7)
1,000만원 미만	16(1.7)	9(1.0)	190(20.2)	115(12.1)	427(45.5)	249(26.2)
1,000만~3,000만원	6(0.7)	11(1.1)	95(10.2)	153(16.1)	113(12.0)	155(16.3)
3,000만원 이상	4(0.5)	15(1.6)	62(6.7)	184(19.4)	23(2.5)	59(6.2)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장하는 방법으로 향후 10년 후의 농가계층 비율을 추정하여 규모별 분포를 전망하기로 한다.

먼저, <표 4-9>에서 보면, 논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05년에 호수로 4.9%, 면적으로 26.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호수 비율이 9%, 면적 비율이 3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표 4-10>에서 밭 2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05년에 호수로 3.9%, 면적으로 29.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호수 비율이 5.7%, 면적 비율이 4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9. 논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0.5ha 미만		0.5-3ha		3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2000	42.25	13.75	53.97	66.21	3.79	20.04
2005	43.08	11.73	51.99	61.90	4.93	26.37
2010	43.26	10.52	50.08	57.88	6.66	31.60
2015	42.78	9.06	48.25	54.11	8.97	36.83

표 4-10. 밭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0.3ha 미만		0.3-2ha		2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2000	53.68	14.90	43.16	61.14	3.16	23.95
2005	54.86	13.27	41.26	56.81	3.89	29.93
2010	55.85	11.32	39.44	52.78	4.71	35.90
2015	56.63	9.09	37.70	49.04	5.67	41.87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3. 영세농의 성격

한편, 이렇게 대농 계층으로 농지 등의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농가는 영세농 계층으로 누적되어 2005년 현재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전체

경종농가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농업총조사에서 영세농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47만호인데 이들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2세이고 65세 이상이 48.1%를 차지하고 있다. 또, 0.5~1ha 계층의 농가는 33만호인데 이들 경영주의 48.5%가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이들 영세농, 특히 고령농가를 농정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부에서 영세고령농이 농업구조개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모두 나머지 농가에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호당 경지면적은 0.2ha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영세농의 존재가 농업생산의 효율화 또는 규모화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영세 고령농가가 은퇴시까지 자급적 영농에 종사하면서 약간의 소득과 함께 노동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가족농의 경영 구조는 점점 양극 분화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농업경영의 중심 축을 형성해 온 중농층의 농가는 겸업화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탈농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다. 더욱이 농업경영의 승계가 불투명한 영세고령농가 계층을 중심으로 농가호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이며, 이들의 보유 농지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가에게 집중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농지유통의 조건이 성숙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영세농의 경영체 성격

연도 항목	2000		2005	
	0.5ha 미만	0.5~1.0ha	0.5ha 미만	0.5~1.0ha
총농가수(천호)	440.6	378.7	474.8	330.7
보유 경지면적(천ha)	127.8	283.5	129.1	247.3
경영주 연령 평균(세)	60.4	59.5	62.1	62.2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41.5	31.2	48.1	48.5
호당 가구원 수(명)	2.61	2.83	2.52	2.63
호당 농업종사자 수(명)	1.78	2.00	1.35	1.65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3.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의 동향

3.1. 농지임차농의 동향

경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매입이나 상속 등으로 소유지를 늘리는 방법과 임차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최근의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성격과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농가 인구의 이농과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로 임대 농지가 증가하였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지의 비농업용 수요가 증대하여 농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이농과 상속 등에 의해서 부채지주의 농지 면적이 증가하지만 농지 시장에서의 농지 매매는 활발한 편은 아니다. 재촌 농가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채지주는 자본 형성의 한 수단으로 농지 소유를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농지 시장에서 농지의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농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지의 수익지가가 실세지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이농자의 농지 소유와 이농자에 대한 농지 상속으로 임대농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농지 수요공급상의 불균형으로 농지의 임차료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가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농지를 구입하기보다는 임차료가 저렴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늘리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다.

1990년대 들어 임차지의 경제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표 4-12>에서 논 임차료와 농지가격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지

⁷ 1990년까지 농지임대차의 증가 원인으로 농지개혁 불철저, 농지법 부재, 고지가 등이 지적된다. 농지임대차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영기,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를 참조할 수 있다.

대의 자본환원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았으나, 점차 그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가(실세지가> 수익지가)는 여전하며, 농지구입보다는 임차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가 유리한 실정이다.

농가경제통계에 의하면, 임차농지의 비율은 1960년에 13.5%, 1970년에 17.6%, 1980년에 21.3%, 1990년에 37.3%, 2000년에는 43.6%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임차농가 비율은 1960년에 26.4%, 1980년에 46.1%, 그리고 2000년에는 72.6%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임차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임차지가 경영규모 확대의 수단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대농층일수록 임대차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의 경향을 보여 2005년 현재 0.5ha 미만 계층의 임차지 비율은 35.7%인데 비해 2ha 이상 계층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표 4-12. 논 임차료와 농지가격 추이

연 도	논 가격(A)	논 임차료(B)	B/A(%)	단위: 원/3.3㎡, %	
				시중금리(%)	
1980	3,987	175	4.4	14.8	
1985	7,822	382	4.9	7.5	
1990	18,312	640	3.5	7.0	
1995	19,028	568	3.0	6.0	
2000	36,458	810	2.2	6.0	
2004	40,809	853	2.1	4.5	

주: 농지가격은 농협조사부 조사 중급 논 가격, 농지임차료는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 시중금리는 1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한국은행).

표 4-13.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의 추이

연 도	평 균	단위: %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ha 이상
1980	21.3	15.5	20.8	24.0	23.5	17.2
1985	30.5	23.5	28.9	32.3	30.7	30.9
1990	37.4	26.8	31.1	36.0	37.7	44.1
1995	42.2	25.6	32.1	34.7	39.3	50.6
2000	43.6	25.5	33.3	38.4	39.2	51.2
2005	42.5	26.3	34.4	36.9	42.5	54.5

자료: 농가경제통계에서 계산.

3.2. 위탁영농의 동향

다음으로, 위탁영농의 동향을 살펴보자. 위탁영농이란 논농사에 경영주나 가구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여 농사를 지은 것을 말한다.

최근 농업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벼농사의 경우에 탈곡, 수확, 경운, 이앙, 방제작업 등의 순으로 위탁영농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콤바인은 수확기에 20ha 정도의

표 4-14.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영농형태 \ 연도			1990	1995	2000	2005
논갈이	자가영농		52.3	48.2	40.2	35.9
	위탁영농	전체	47.5	51.4	59.8	64.1
		전부 타인	39.4	42.4	54.7	57.0
		50% 이상 타인	5.2	6.6	3.9	7.1
		50% 미만 타인	3.0	2.4	1.2	
모내기	자가영농		43.6	40.1	40.4	37.4
	위탁영농	전체	56.2	59.5	59.6	62.3
		전부 타인	36.7	46.5	54.4	54.0
		50% 이상 타인	12.8	10.1	4.0	8.2
		50% 미만 타인	6.7	3.0	1.2	
농약살포	자가영농		64.9	70.7	70.1	66.9
	위탁영농	전체	35.0	28.9	29.9	32.4
		전부 타인	22.1	20.1	25.5	25.3
		50% 이상 타인	8.3	6.2	3.3	7.1
		50% 미만 타인	4.6	2.7	1.2	
벼베기	자가영농		39.4	25.1	18.5	15.2*
	위탁영농	전체	60.4	74.5	81.5	84.8*
		전부 타인	43.4	61.6	76.8	79.2*
		50% 이상 타인	11.1	10.1	3.6	5.5*
		50% 미만 타인	5.9	2.8	1.1	
탈곡	자가영농		26.6	22.2	17.4	
	위탁영농	전체	73.3	77.4	82.6	
		전부 타인	61.1	64.8	77.9	
		50% 이상 타인	8.1	9.8	3.5	
		50% 미만 타인	4.1	2.9	1.1	

주: 2005년 농업총조사에는 벼베기와 탈곡이 한 항목으로 합쳐져 있음.

64 농업경영의 자립과 규모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손익분기점을 실현하는데, 만일 자기 논이 3ha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타인의 수확을 대행해야만 농기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영농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표 4-15. 논 경영규모별 위탁(전부위탁) 농가 수 및 비율(2005년)

단위: 호, %

구 분	논벼농가 수	육묘작업	전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
0.5ha 미만	412,001 (43.9)	128,637 (4.9)	85,416 (3.3)	278,506 (10.7)	283,388 (10.8)	143,985 (5.5)	351,131 (13.4)
0.5~1ha	270,593 (28.8)	48,674 (1.9)	30,940 (1.2)	159,784 (6.1)	147,765 (5.7)	64,684 (2.5)	224,464 (8.6)
1~2ha	161,111 (17.2)	15,303 (0.6)	8,934 (0.3)	75,087 (2.9)	58,601 (2.2)	22,847 (0.9)	121,143 (4.6)
2~3ha	43,374 (4.6)	2,182 (0.1)	1,109 (0.04)	13,137 (0.5)	9,873 (0.4)	3,275 (0.1)	26,334 (1.0)
3~4ha	22,970 (2.4)	793 (0.03)	356 (0.01)	4,231 (0.2)	3,487 (0.1)	1,135 (0.04)	10,465 (0.4)
4~5ha	9,643 (1.0)	195 (0.01)	83 (0.003)	1,125 (0.04)	1,065 (0.04)	280 (0.01)	3,417 (0.1)
5ha 이상	18,444 (2.0)	336 (0.01)	135 (0.01)	1,087 (0.04)	1,343 (0.1)	389 (0.01)	4,218 (0.2)
합 계	938,136 (100.0)	196,120 (7.5)	126,973 (4.86)	532,957 (20.4)	505,522 (19.3)	236,595 (9.0)	741,172 (28.3)

주: 전작업은 모든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임.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표 4-16.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위탁) 비율(2005년)

단위: %

연령별	경 윤	이 앙	수 확
30세 미만	0.2	0.2	0.2
30~39세	2.0	2.1	2.3
40~49세	9.3	10.2	11.6
50~59세	19.1	19.4	21.7
60~69세	37.8	36.4	36.9
70세 이상	31.7	31.7	27.2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또, 위탁영농은 고령농가의 주된 현상으로,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위탁영농의 비율이 높아져 60~69세 연령층에서 최고조에 달하다가 70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60대까지는 부분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가가 위탁영농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로짓 분석으로 논벼 이양작업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주 연령이 많을수록, 논농사 비율이 높을수록, 복합영농의 벼농사일수록 위탁영농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위탁보다는 자경하는 경향이 강한 농가는 농업종사자가 많으며, 논농사 규모가 크고,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는 농가이다.

표 4-17. 위탁영농(이양작업)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항목		연도		2000		2005	
				파라미터	표준오차	파라미터	표준오차
전·겸업형태	전업(기준), 겸업	-0.184969	0.007679	0.0079	0.0075		
농업종사자 수		0.301775	0.004857	0.3284	0.0051		
경영주 연령		-0.030130	0.000314	-0.0321	0.0003		
논농사 면적		5.33E-05	1.84E-06	4.86E-05	1.21E-06		
논농사면적 비율	논면적/경지면적	-1.067710	0.019151	-0.6857	0.0172		
농기계보유 대수	이양기 보유 기준	5.133828	0.012474	4.2856	0.0085		
영농형태	벼농사(기준), 기타작목	-0.266572	0.008896	-0.2852	0.0090		
상수항		0.446844	0.021329	-0.0572	0.0244		
log likelihood		-291,803		609,340			

주: 종속변수는 이양작업 유무로 구분(자경 기준).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농업경영은 농산물의 조직적인 생산 단위이므로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농업경영의 요소와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적·제도적 수단 등이 적절히 결합된 모습을 경영조직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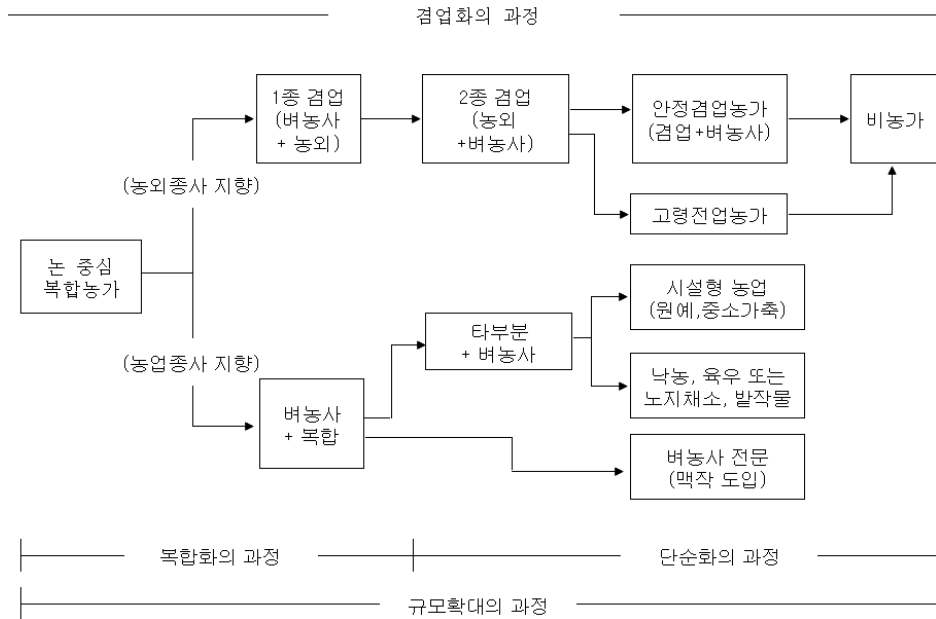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가는 대부분이 영세농이며 복합경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영농 형태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업농가는 대체로 특정한 품목에 전문화되어 영농하고 있으나, 영세농일수록 작목 선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경영규모와 연계하여 영농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흥미로운 과제이다. 특히 전업농가는 대체로 특정한 품목에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경영규모와 연계한 영농 형태의 구분은 농업구조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농업경영 분화와 영농 형태

1.1. 농업경영 분화의 경로

농가의 농업경영 분화는 노동력 분화와 영농 형태의 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력 분화는 ‘가구원 겸업 → 경영주 겸업 → 탈농’의 과정

그림 5-1. 농가 분화 과정의 모식화



에서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농업경영 형태의 분화는 논농사 중심의 농가가 벼농사에 전문화하느냐 혹은 다른 작목과 복합화하느냐의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전문화의 방향은 해당 작목의 경영규모 확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규모경제에 입각한 농업경영이 전개되겠지만, 복합경영은 이른바 다각화의 유리성이 발휘된다.

따라서 복합영농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토지의 보완적 이용을 추구하는 부문간 복합화의 형태로서, 동일 기간 중의 혼작 혹은 재배 기간을 달리하는 전후작과 같은 복수의 작목을 재배하는 형태를 말한다. 둘째는 생산물간의 기술적인 보완관계를 추구하는 형태로서, 어느 한 부문에 의한 중간 생산물을 다른 부문에서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콩과작물과 화본과작물의 전후작 관계가 해당된다. 셋째는 고정자본재의 보합적 이용을 추구하는 형태로서, 경영에 고정되어 있는 전업노동력 및 농기구 등을 보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노동력과 트랙터를 연중 이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1.2. 전업과 겸업의 분화

농가 통계에서 전업과 겸업을 구분하는 것은 농업경영의 전업적인 정착과 농외 취업에 의한 단계적인 이탈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전업농가는 농업 이외의 일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말하며, 겸업농가는 겸업종사자가 있는 농가이다. 또, 1종 겸업농가는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이며, 2종 겸업농가는 농외수입이 더 많은 농가이다.

농업기본통계에서 농가의 전·겸업별 분포를 보면, 1960년 이후 1995년까지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실업대책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겸업농가 비율은 1990년 40%에서 2005년에는 37% 수준으로 미미하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 5-1>에서 겸업농가의 내용을 보면, 1종 겸업농가의 비율은 1990년 22%에서 2005년 13.0%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종 겸업농가는 1990년 18.4%에서 1995년 25%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 18.6%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다시 24.5%로 증가하였다.

표 5-1. 전·겸업별 농가 분포

		단위: 호, %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033	100.0	1,500,745	100.0	1,383,468	100.0	1,272,908	100.0
전업농가		1,052,315	59.6	849,053	56.6	902,149	65.2	796,220	62.6
겸업농가		714,718	40.4	651,692	43.4	481,319	34.8	476,688	37.4
1종 겸업농가		389,097	22.0	277,214	18.5	224,642	16.2	164,976	13.0
경영주 겸업		95,632	5.4	69,165	4.6	42,227	3.1	37,061	2.9
가구원 겸업		199,085	11.3	140,644	9.4	132,471	9.6	78,788	6.2
전가구 겸업		94,380	5.3	67,405	4.5	49,944	3.6	49,127	3.9
2종 겸업농가		325,621	18.4	374,478	25.0	256,677	18.6	311,712	24.5
경영주 겸업		75,057	4.2	86,661	5.8	61,935	4.5	86,111	6.8
가구원 겸업		126,200	7.1	139,308	9.3	91,413	6.6	106,150	8.3
전가구 겸업		124,364	7.0	148,509	9.9	103,329	7.5	119,451	9.4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한다.

여기서 겸업농가는 경영주 겸업이나 가구원 겸업이냐가 관심사인데, 1종 겸업농가는 경영주 겸업인 반면에 2종 겸업농가는 가구원 겸업이 많은 형태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수치를 보면 1종 겸업농가는 가구원 겸업의 형태가 전 농가 대비 6.2%로 높다. 이에 비하여 2종 겸업농가는 경영주 겸업의 형태가 전 농가 대비 6.8%, 그리고 전 가구원 겸업의 형태가 9.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업농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로짓 분석의 결과를 <표 5-2>에서 보면, 전업농가는 농기계를 보유할수록,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농사 경력이 많을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전업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겸업농가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경영주 학력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으며 영농승계자를 보유하고 자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전업농가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연도		2000		2005	
		파라미터	표준오차	파라미터	표준오차
경영주 학력	무학(기준)~대학원	-0.043	0.003	-0.215	0.008
가구원수	명	-0.476	0.002	-0.580	0.002
기계화 정도	농기계보유대수	0.181	0.002	0.223	0.002
경영주 고령화	고령, 비고령(기준, 64 이하)	0.603	0.007	0.732	0.006
영농승계자수	명	-0.656	0.009	-0.488	0.013
농사경력	연수(경영주)	0.003	0.0003	0.012	0.000
영농규모	평(논농지)	4.46E-05	9.33E-07	3.56E-05	7.41E-07
영농방법	자영, 위탁(기준)	-0.107	0.006	-0.098	0.006
상수		1.327	0.016	1.223	0.012
Log Likelihood		-429,184		1,003,988	

주: 종속변수는 전업농가 여부로 구분(전업농가 기준).

1.3. 영농 형태의 분화

최근 들어 농가의 특징으로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전문화 경향

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전업농가는 대체로 특정한 품목에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경영규모와 연계한 영농 형태의 구분은 농업 구조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형태는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등의 8개 분야로 대분류하며,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를 주 작목으로 하여 영농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상업농화 추세에서 농산물 판매액이 농가의 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별로 농산물 판매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조사하지 않고 대체적인 범위를 조사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1970년대 말에 주곡 자급을 달성할 정도로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소득작목이 도입되는 등 상업농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개방화 진전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작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에 농업성장을 주도했던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은 그 후 감소세로 반전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3.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

단위: 천호, %

구분 연도	전체 농가	영 농 형 태 별 농 가 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1990	1,767 (100.0)	1,232 (69.7)	107 (6.1)	172 (9.8)	39 (2.2)	6 (0.4)	114 (6.5)	89 (5.0)	8 (0.4)
1995	1,501 (100.0)	823 (54.9)	144 (9.6)	247 (16.4)	46 (3.0)	10 (0.7)	70 (4.7)	156 (10.4)	5 (0.4)
2000	1,383 (100.0)	787 (56.9)	143 (10.4)	238 (17.2)	38 (2.7)	8 (0.6)	92 (6.6)	72 (5.2)	5 (0.3)
2005	1,273 (100.0)	648 (50.9)	146 (11.4)	230 (18.1)	27 (2.2)	10 (0.8)	125 (9.9)	83 (6.5)	4 (0.3)
2015 (추정)	883 (100.0)	432 (48.9)	119 (13.5)	180 (20.4)	19 (2.2)	7 (0.8)	66 (7.5)	57 (6.4)	3 (0.3)

주: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임. 2015년은 코호트 추정 결과.

그렇다면 농가는 어떻게 특정한 작목에 전문화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벼농사 농가가 전문화하는 요인에 대하여 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로짓 분석의 결과를 <표 5-4>에서 보면, 2000년 및 2005년에 대해 모두 기계화가 잘된 농가일수록 주작목으로 논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겸업을 하는 농가일수록 주작목을 논벼로 하고, 전업을 하는 농가일수록 논벼 이외 작목을 주작목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농승계자 유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일수록 주작목으로 논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2005년도에는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일수록 논벼 이외의 작목을 주작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차이를 보였다.

표 5-4. 벼농사 전문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항 목		연 도		2000		2005	
				파라미터	표준오차	파라미터	표준오차
기계화 정도	농기계보유대수			0.113	0.001	0.002	0.001
농가형태	전업농, 겸업농(기준)			-0.277	0.005	-0.103	0.004
경영주 연령	고령농, 비고령농(기준)			0.502	0.005	0.377	0.004
영농승계 여부	있음, 없음(기준)			-0.061	0.008	0.022	0.010
상수				0.098	0.005	-0.065	0.003
Log Likelihood				-613,641		1,754,028	

주: 종속변수는 영농형태로 농가 농산물 판매액 중 가장 높은 작목을 해당농가의 주 영농형태로 판단함. 논 벼재배=1, 기타농산물(과수, 특용, 채소, 화훼, 밭작물, 축산, 양잠 등)=0, 기타농산물간 구분을 하지 않음.

2. 농가의 조직화 동향

2.1. 생산조직의 개념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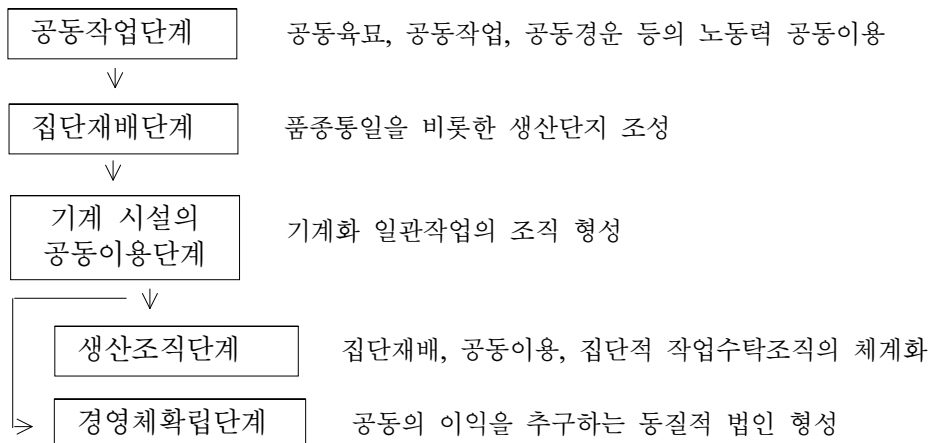
개별농가는 자기완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농가간에 농작

업이나 농업경영을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조직이 성립되고 있다. 농업 생산조직이란 “복수(2호 이상)의 농가가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서 공동화하기로 하여 결합한 집단 및 농업경영이나 농작업을 조직적으로 맡아서 하는 조직”을 말한다.

농업생산조직은 조직의 강도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이용 조직으로, 복수의 농가가 노동력이나 농기계 혹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둘째는 집단재배 조직으로, 재배 협정 혹은 재배 협정과 관련된 공동작업 및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가의 집단을 말한다. 셋째는 수위탁 조직으로, 농업의 경영이나 농작업의 전부 혹은 부분 위탁을 통하여 수탁료를 수취하는 조직을 말한다. 넷째는 협업경영 조직으로, 2호 이상의 세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업 경영의 전과정을 공동으로 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조직 자체가 독립적인 경영 주체로 성립한다.

이러한 생산조직은 <그림 5-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초보적인 노동력 공동이용의 형태로부터 생산단지 조성, 농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 집단 재배 또는 공동경영 등의 단계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체 확립의 단계로 이행한다.

그림 5-2. 농업생산조직의 발전 단계



2.2. 농가의 생산조직 참여 실태와 전망

우리나라에서 농업생산조직이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이다. 당시 정책적으로 농업생산의 조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별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작목반 조직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목반은 1970년부터 농협의 하부조직인 마을 단위의 협동회로서 정부의 저리 영농지원금에 힘입어 활발하게 조직되었는데 1976년에는 한 해 동안 1만 여개의 작목반이 등록되었다. 작목반 조직은 1977년부터 ‘새마을영농회’로 통합되면서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성장작목의 공동출하를 위한 품목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품목별 작목회의 개념이 도입되어 작목반의 광역화가 시도되기도 하였다.⁸

1980년대는 생산자조직의 작목별 분화를 촉진시키는 시기였다. 특히 1981년부터 농업기계 보급을 위하여 결성된 기계화 영농단은 기존의 쌀 작목반을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3년부터 농협의 자금 지원에 의하여 결성된 ‘협동출하반’은 기존 작목반과 함께 농산물의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담당하는 일선 조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협동출하반은 작목반이 생산 중심에서 출하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농가의 협동화·조직화 동향을 반영하여 정부는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임의의 생산자조직을 영농조합법인(협업적 농업경영체) 및 위탁영농회사(농작업 수위탁 조직체)로 법인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전문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1995년에는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대등한 농업경영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농업법인제도는 1998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⁸ 작목반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협회, 작목반의 현장, 1993.10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주요한 농업생산조직으로 작목반과 공동경영체 그리고 농업법인이 존재한다. 이들 생산조직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전수 조사를 하였는데, 생산조직 참여농가는 22만 6천호(작목반 20만2,342호, 농업법인 4만9,200호)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이 약화되는 추세에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가 성립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청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체를 ‘기업농’이라 부를 수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기업적 농업경영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법인으로,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중심으로 출자하고 그들이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성원 요건을 완화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산업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체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명실 공히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공기관 또는 제3섹터 방식의 농업경영이다. 공기관이란 이미 준농가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기관을 말하며, 현재는 주로 시험연구를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농협 등과 제3섹터 방식으로 위탁영농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가 공기업에 출자하여 농지보전 목적으로 휴경농지 등을 경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촌 현장에서 태동하고 있다.

셋째는 기업의 농업경영으로, 제도적으로 기업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표 5-5. 영농형태별 생산조직 참여농가 수 (2005년)

단위: 호

	전체	논벼	과수	특작	채소	일반전작	축산	기타
작목반	202,342	55,374	59,268	7,441	59,782	5,865	9,736	4,876
영농조합	44,302	14,263	10,742	1,598	9,007	2,312	5,403	977
농업회사	4,898	2,103	728	202	900	312	573	80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않기 때문에 기업농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간척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 이후 소유 제한이 예외로 취급되어 비농민의 소유가 가능하였으나, 간척지의 기업농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농지를 농업인에게 분양함으로써 현재는 소수의 농장만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한편, 축산경영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업축산이 허용되어 기업농이 활발한 편이다.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로 대표적인 형태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와 제16조에 근거한 농업법인이다. 200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업법인사업체 통계에 의하면,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총 5,626곳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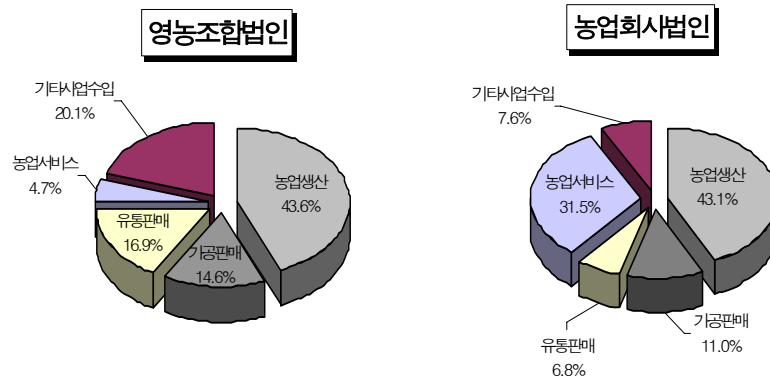
그러나 이 가운데 법인의 명칭만 있을 뿐 일체의 경영을 각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은 실질적으로 개인농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진정한 농업법인은 3,549곳(영농조합법인 2,958, 농업회사법인 591)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농업법인의 사업 형태를 보면, 농업생산 43.5%, 기타사업수입 18.0%, 유통판매 15.2%, 가공판매 14.0%, 농업 서비스 9.2% 등의 순이다. 또한 판매액 비중으로 보면 농업생산이 31.3%, 농축산물가공업 28.5%, 농축산물유통업 25.6%, 기타사업수입 11.8%, 농업서비스업 2.8% 등의 순이다. 즉, 전체 농업법인의 절반 이상이 농가가 생산한 원료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5-6. 농가 이외의 경영체 현황(2005년)

구 분	운영중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비율			
합 계	5,626	100.0	2,841	708	1,711
영농조합법인	4,293	76.3	2,396	562	1,335
농업회사법인	967	17.2	445	146	376
일반회사법인	88	1.6	-	-	-
기 타	278	4.9	-	-	-

주: 기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임.

그림 5-3. 농업법인의 사업 형태 분포(2005년)



자료: 통계청, 2005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오늘날 기업농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는 기업적 농업경영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농업생산력 측면에서의 유리성이다.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 하에서는 가족농이 활력을 가졌으나,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기업조직이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경영기술 측면에서의 유리성이다. 상업농 진전으로 생산부터 판매 내지는 소비 동향까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불가결하며, 특히 마케팅 전략과 기술은 기업경영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농가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하여 전문유통업체에 의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는 경영체로서의 영속성이다. 가족 내의 협업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가간의 협력 내지 공동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족농은 후계자 단절로 농업경영이 소멸할 수 있으나, 기업농은 신규인력을 통하여 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농가의 발전 과정을 사경제 측면에서 보면 농업경영의 자립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 성격이 강화된다. 그러나 경영규모의 무한정한 확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경지의 영세 분산성, 고용노동의 도입에 따른 관리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모화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이에 대응한 경영구조의 개선을 꾀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게 된다. 단순한 면적 확보보다는 복합화·다각화를 도모하는 경향으로 발전한다.

특히, 농지의 외연적 규모 확대에 의존하는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에서는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영규모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경영주 1인 경영에 의존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가족협업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경영규모 확대를 통해 자립경영 수준으로 성장해 온 선도적인 전업농의 사례를 통하여 가족경영의 경영 발달과 경영구조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과 방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경영요소적 관점과 노동 측면에서 가족노동의 변화, 영농규모의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영조직의 변화를 검토하고, 가족경영의 제약요인이 다른 경영요소 및 경영조직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소되어 가는 경영발전 과정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인 농가 5호를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는 가족협업을 통하여 수도작 대규모 경영과 함께 육묘사업과 도정사업을 도입하여 벼농사 전·후방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쌀 전업농의 사례, 두 번째는 작목반 및 농협조직과 연계하여 수출농업을 실현한 파프리카 전업농의 사례, 세 번째는 시장개척을 위하여 동종의 전업농가와 연합하여 유통조직을 설립한 화훼 전업농의 사례, 네 번째는 가족협업과 복합화를 통하여 경영효율을 강화시킨 과수 전업농의 사례, 다섯 번째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신규로 농업경영을 창업한 한우 전업농의 사례이다.

이 다섯 농가의 공통점은 단순한 전업농이 아니라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경영규모 확대와 함께 경영의 복합화·다각화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을 증진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개별농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유통부문에 대해 조직화를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1. 조사대상 전업농의 경영 개황

구 분	경영 규모	경영 형태	사업 내용
쌀 전업농	소유지 12ha, 임차지 26.3ha, 계 38.3ha	가족협업(3세대) 부모, 본인, 형(U턴 귀농)	육묘공장, 쌀생산, 기계수위탁, 쌀가공 등 다각경영 부친 쌀전업농 회장
파프리카 전업농	본인:온실 1ha 작목반(12호): 8.3ha	가족경영(1세대) 형, 동생 귀농, 개별경영	파프리카 생산 및 수출 작목반 반장
화훼 전업농	본인: 온실 3.2ha 조합(8호): 18.3ha	법인→개별경영 전환 후계자 양성(한농진) 상시고용인원 15명	유리온실 화훼생산 유통조직 회장
과수 전업농	복숭아 2.7ha 배 0.5ha, 벼 2ha	가족협업(3세대) 부모, 본인, 형(U턴 귀농)	과수(복숭아, 배)+벼 복합경영 복숭아연구회 회장
축산 전업농	한우 100두	무연고 창업농(농대졸) 가족 경영(1세대)	한우(비육우) 한우회 총무

2. 사례 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과 성공 요인

2.1. 가족협업에 의한 쌀 전업농: 전북 익산 J농가

2.1.1. 경영 발전 과정

경영주는 현재 33세의 청년으로서 1994년 농어민 후계자 병역특례를 받아 영농후계자가 되었고, 경영 승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익산대학 농업경영과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농업경영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경영주의 부친은 익산시 쌀전업농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전문 농업인으로서 경영주의 영농 참여 당시에 12ha의 벼농사를 경영하는 대농으로 전업농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표 6-2. 전북 익산 J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경영 내용	취농 당시(1994년)	현상황	비고
경영 인력	1994년 농업인후계자 병역특례, 2000년 익산대학 졸업. 부친과 영농	부모, 본인, 형 3세대 경영	2007년 도정사업을 위해 친형 귀농
영농 규모	총 12ha(소유 4ha, 임차 8ha) 농작업 수위탁 추진	총 38.3ha(소유 12ha, 임차 26.3ha) 농작업 수위탁: 이앙 40ha, 로터리경운 16.7ha, 수확 33.3ha	매년 2~3필지 농촌공사 농지구입지원(평당 2만5천~3만원), 보유 농기계: 트랙터 3대(125HP 1대, 80HP 2대) 이앙기 8조 1대, 콤바인2대
경영 특징	-	육묘공장(2004) 도정공장(2007)을 도입하여 경영 다각화 추진	경지 규모확대의 한계, 부가가치 증대 목표

경영주는 2001년 농업인 후계자 자금을 지원받고, 매년 영농수익의 일부와 아울러 농촌공사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매년 2~3필지씩 농지를 구입함으로써 2007년 현재 본인 명의로 논 3.2ha를 소유하는 등 본격적으로 부친과 협업경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지규모 확대가 용이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농지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점(2006년 구입시 10a당 1천만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경영규모 확대를 추구한 결과 2007년 현재 38.7ha 규모로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이상의 규모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외연적 경영규모 확대에 치중한 결과로 영세 분산필지와 수확후 판로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됨을 인식하고 규모 확대보다는 경영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육묘공장을 설립하고, 2007년에는 도정시설을 설치하였다. 2007년에 친형이 귀농하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3부자가 ‘벼농사+도정업’을 경영하는 가족형 농기업을 실현하게 되었다.

2.1.2. 경영의 특징과 성공 요인

경영주가 빠른 기간 동안에 전업농으로 정착한 가장 큰 요인은 전 경영주(부친)의 탄탄한 농업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후계자의 상속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가족농의 경영교육 기능을 발휘하여 유연한 경영승계가 이루어졌고, 가족적 협업관계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장하게 되었다.

경작지 논의 필지 분산이라는 생산기반의 제약조건과 조곡 생산 중심의 소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경영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2.1.3. 향후 경영 계획

경영주는 가족노동력에 의한 벼농사의 규모 확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벼농

사의 외연적 경영규모 확대보다는 쌀 도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쌀농업 전문기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2. 작목반과 동반성장하는 파프리카 전업농: 경남 합천 Y농가

2.2.1. 경영 발전 과정

경영주는 농업경영에 뜻을 품고 거창농고를 졸업하고 동아대 농대에서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연마한 후 1988년(28세)에 본격적으로 영농에 참여하였다. 1988년에는 도전 정신으로 1.5ha 규모의 고랭지배추를 도입하여 상업적 영농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소득작목으로 안개꽃 재배를 도입하여 0.4ha의 비가림 재배에 성공하였다.

표 6-3. 경남 합천 Y농가의 경영 변화 내용

경영 내용	취농 당시(1988년)	현상황	비고
경영 인력	거창농고 졸, 동아대 농대 졸 1988년 영농 참여(28세)	부모, 본인가족, 동생 (1997), 형(2004) 귀농	형: 파프리카 재배 동생: 고랭지 배추
영농 규모	1.5ha 규모의 고랭지배추 영농시작	본인 온실 1ha, 농가 12호가 8ha 파프리카 작목반을 결성하여 규모화 추진	1988년 안개꽃 도입 1992년 백합작목반 구성 1995년 유리온실 설치, 장미 수출 2001년 파프리카 수출 2004년 선별장 설치
경영 특징	-	출하조직을 구성(작목반)하여 농협 수출조직(농협 무역)과 연계한 수출산업화 추진	농협은 상품 검수 및 수출대행 업무 수행 지역농협과 역할 분담

1990년대 들어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조직화를 시도하여 1992년에는 농림부 화훼단지육성사업을 지원받아 이웃 주민과 함께 작목반을 결성하였다. 본인 경작규모 0.5ha에 인근 농업인의 농지 1.5ha를 합하여 2ha 규모로 백합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농업단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1994~95년에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온 후 1995년에 유리온실을 건축(도비 지원)하고 1996년부터 장미 양액재배에 도전하여 2000년에 5억 원 수출을 달성하였다. 2001년에는 파프리카 재배를 시작(최초 6ha로 재배 시작: 본인 1ha + 12농가)하여 첫 해에 성공을 거두었다. 고랭지파프리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7ha 시설지원 (총 5농가 각각 0.33ha)등 2007년까지 12농가 총 8.3ha로 경영규모를 확대하였다.

현재 파프리카의 구매 및 출하(관내 농협에서 수출 대행)를 농협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

2.2.2. 경영 특징과 성공 요인

농업경영주는 영세한 상속농가를 승계하고 신기술을 연마하면서 독농가로 성공한 사례이며, 영세농의 한계를 농업생산조직을 통해 극복하였다. 경영주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신규 작목 도입에 성공한 후 주변 농업인을 설득하여 작목반을 결성하고 이를 수출농업단지로 발전시켰다. 개별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지역농협의 산지유통 기능이 우수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경영주는 경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합천군 농정발전위원회, 가야면 후계자 부회장, 한농연 화훼분과 위원장, 도 농정자문위원 등 지역농업과 관련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가족의 영농참여를 자극하게 되어 1997년에는 남동생이, 2003년에는 친형이 귀농하였다.

2.2.3. 향후 경영 계획

경영주는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립종자관리소의 육종가로 등록되어 자생초(용담초)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도 전념하여 겨울딸기를 조기 출하하기 위하여 고랭지의 1ha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축성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설원에 전업농가로 주변 농가와 탄탄한 생산조직을 결성하면서 산지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3. 유통조직에서 활로를 찾는 화훼 전업농: 전북 장수 J농가

2.3.1. 경영 발전 과정

경영주는 1987년에 상속농가로 영농을 시작하였다. 부친의 농업경영을 승계하여 총 3.3ha(본인 소유 1ha, 임대 2.3ha) 규모에 노지 고랭지 배추로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 무렵에는 0.5ha 단동 비닐하우스에서 안개꽃, 거베라, 백합 등의 화훼경영을 도입하였다. 현재 영농경력 20년째로 본인(50세)과 배우자(46세)가 함께 종사하고 있으며, 아들(한국농업전문학교 3학년 재학 중)은 영농계승 준비 중이다.

경영주는 1990년부터 화훼 전업농으로 발전을 도모하였다. 1992년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오고, UR협상이 타결되는 상황에서 도전적으로 유리온실 경영을 계획하였다. 1993년에 0.5ha 규모의 연동 유리온실을 건설한 후 백합, 고추, 오이 등 원예작물 생산을 시도하였으며, 1996년에 화훼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유리온실 경영에 참여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화훼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화훼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1999년에 물류를 통합하고 수출 확대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2000년에 (주)로즈피아를 결성하였다. 조직 결성 당시는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주식공모를 통해 자본금 2억5천만원으로 시작하였다. 기계 장치 등도 개인투자자로 설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2001년과 2002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별기 구입 및

선별장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2003년에는 사무실을 확장하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되면서 공동선별 비용, 수출장려금 등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유통조직화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표 6-4. 전북 장수 J농가의 경영변화 내용

경영내용	취농 당시(1987년)	현상황	비고
경영인력	1987년 영농승계(30세)	가족경영, 자녀 영농승계 추진(장남, 한농전 재학)	영농조합(1996) 결성후 사실상 해체(지분정리) 대규모 고용영농(상시 고용 15명)
영농 규모	총 3.3ha(소유 1ha, 임차 2.3ha) 고랭지 배추로 영농 개시	본인: 유리온실 3.2ha 유통법인 설립(2000년) 회원농가(영농조합법인) 유리온실 18.3ha	1990년 단동하우스로 화훼 시작 1992년 네덜란드 연수 1993년 0.4ha 연동 유리온실 시설 1996년 화훼영농조합 결성 1997년 물류 통합 및 수출추진을 위한 유통법인 설립
경영 특징	부친의 영농 조력	기업적 가족법인경영 확립, 유통부문을 조직화하여 수출농업 실현	영농법인+유통법인을 통한 기업적 경영체계 도입

2.3.2. 경영 특징과 성공 요인

경영주는 중규모의 밭농사에 취농하였으나, 새로운 소득작목에 도전하여 선구적으로 유리온실 경영을 실현하였다. 일찍이 양액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선구적으로 유리온실을 경영하였으며,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수출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였다.

경영주는 사업 수완이 탁월하여 개별경영의 규모화를 실현한 후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판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동종업자를 규합하여 유통전문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다시 수출회사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2.3.3. 향후 경영 계획

경영주는 화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규모화된 생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산된 유리온실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2.4. 경영 다각화를 꾀하는 과수 전업농: 경기 이천 S농가

2.4.1. 경영 발전 과정

경영주는 1989년 군 제대와 동시에 부친의 영농을 돕다가 1991년에 결혼하면서 부친으로부터 복숭아 과수원 1ha를 물려받아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경영규모를 조금씩 확대하였으며, 2000년에는 도시에 나가 있던 큰형(52세)이 귀농했으며 현재 부친(73세)을 모시고 배우자(38세)와 가족 3세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이 농가는 작목의 복합화를 통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주년 영농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친의 영농 승계와 농지 구입 및 임차를 통하여 과수원 3.2ha(복숭아 2.7ha, 배 0.5ha) 외에 논농사 4ha(소유 2ha, 임차2ha)를 도입하여 총 7.2ha 규모의 영농으로 발전하였으며, 작기가 다른 작목을 도입하여 노동력 분산 및 주년 영농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주는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화가 가능한 현대식 과원을 조성하고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였다. 생력화를 위하여 복숭아밭 1.4ha는 개간을 통해 저수고로 승용제초기 사용이 가능한 현대식 과원으로 조성하면서 2000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였다. 친환경

경 재배시 노동력의 투하가 많은 제초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승용제초기의 도입이 이루어져 노동력을 50% 절감하는 효과도 얻었다.

1999년에 관내의 복숭아 농가를 규합하여 ‘복숭아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회장으로 있는 복숭아 연구회에서는 황분말을 살균제로 공동제조하여 저가로 농가에 보급하면서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1년 4회 재배관리기술, 친환경교육 등의 연차교육을 실시하고, EM퇴비(유용미생물 퇴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경영주는 유통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형 전문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농협판매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다. 과거 부모세대에 생산 80% - 판매 20%이던 경영 비중을 생산 50% - 판매 50%로 사고를 전환하고 고품질 생산과 함께 제값받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 서울의 도매시장을 2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다니면서 관찰해오던 중 중도매인을 소개받아 6년 동안 고정거래를 하게 되었다. 특히 복숭아 최초로 2kg 박스를 개발하고, (주)채과원을 통하여 롯데마트, 분당 삼성프라자 등 12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표 6-5. 경기 이천 S농가의 경영변화 내용

경영내용	취농 당시(1991년)	현상황	비고
경영인력	1991년 결혼 후 경영 독립(26세)	부(73세)+큰형(52세)+본인(42세)의 3세대경영	부모님 영농승계 큰형 내외 귀농
영농 규모	복숭아 1ha	복숭아 밭 2.7ha 배 밭 0.5ha 벼농사 4ha(임차 2ha)	1991년 결혼, 경영독립 (복숭아 1ha) 1999년 복숭아 연구회 창설(6년째 회장) 2000년까지 농지 규모확 대 추진(현대식 과원조 성, 작기 확대를 위해 배 농사, 벼농사 도입) 2005년 농협 이사
경영 특징	부친의 영농 조력	3세대 가족협업 및 복합화 를 통한 주년 취업가능	3세대 가족협업, 복합 경영

2.4.2. 경영 특징과 성공 요인

경영주는 일찍이 판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판로 개척에 힘쓴 결과로 복숭아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높은 판매가격을 실현하였다. 시장 관찰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규격품 생산과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농가와 연구회 결성 등을 추진하였다.

개별경영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력화 과원 조성 등의 노력과 함께 작기 분산을 위한 경영의 복합화에도 노력함으로써 가족농의 영농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2.4.3. 향후 경영 계획

경영주는 최근 지역농협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지역농협의 판매사업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되고 있는 과수농가의 후계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화를 추진하면서 경영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2.5. 창업하여 영농에 정착한 축산 전업농: 경기 안성 K농가

경영주는 현재 35세의 청년으로 2000년에 단국대 축산과를 졸업한 후 전공을 살려 창업한 농업인이다. 경영주는 진로를 고민하다가 군 체대 후인 대학 3학년 때에 한우 1,000두 규모의 실습농장에서 기술을 습득한 후 축산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

부모가 농촌에 기반이 없는 경우 창업농 후계자 자금지원이 어렵고, 창업에 필요한 토지구입 등도 지역 텃세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나 현지 주민인 장인의 도움으로 어렵게 창업하게 되었다. 창업 당시에 후계자 자금 1억원 및 부모와 친지로부터 빌린 자금 1억원으로 우사를 건설하고 장비 및 소를 입식하여 축산농가로 정착하였다.

경영주는 자기자본 없이 부채에 의존하여 창업하였기 때문에 영농을 시작한 후 계속적으로 부채 상황에 주력하여 경영규모 확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창업 당시에 입식한 한우 50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 상황이 마무리되면 경영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현재의 축사에서 100두 사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영주는 과학영농을 지향하여 농가 창설단계부터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안성맞춤 한우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우회 총무로서 조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안성맞춤한우회”는 1996년에 30명이 참여하여 일죽한우회를 창립하였으며, 철저한 사양프로그램 준수, 이력추적시스템 참여가 필수적이다. 출하성적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혈통의 송아지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70%를 외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가 판매가격 수준은 시중의 우수브랜드보다 15%, 일반농가와 비교해서는 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표 6-6. 경기 안성 K농가의 경영변화 내용

경영내용	취농 당시(2000년)	현상황	비고
경영인력	2000년(28세), 단국대 축산과 졸업 후 창업농 후계자 선정	창업시와 동일	
영농규모	한우 50두 창업농 후계자 자금 1억원, 부모 지원 및 융자 1억원 등 총 2억원으로 축사 신축 및 송아지 입식	한우 50두 한우농가 helper 참여	1998년 실습농장에서 기술 습득 2000년 단국대 축산과 졸업 후 후계자창업농 2005년 안성 한우회 총무
경영특징	대졸 창업농	창설농가	대학 전공을 살린 창업농

2.5.1. 경영의 특징과 성공 요인

경영주는 선친의 영농기반 없이 농업경영을 창설함으로써 초기의 자립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대학의 축산 전공자로서 전문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과 농촌에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 자금은 정부 지원과 사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게다가 담보가 부족하여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농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경영의 전문화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높은 등급의 고급육을 실현하는 등 경영성도가 타 농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축산 전업농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2.5.2. 향후 경영 계획

경영주는 전업농으로서 일차적으로 1억원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육규모 200두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주말 체험형 목장을 설립하여 도농 교류형 관광축산을 계획하고 있다.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전업농 사례는 보편적인 가족농이 발전할 수 있는 선구적인 모델로 판단된다. 사례 농가의 경영주들은 상속 또는 창설의 과정을 통해 영농에 정착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왔으며, 이들 농가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업농으로 발전하기까지 가족협업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직화를 통하여 보완하는 한편, 가족경영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외부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사례 농가들은 창업 초기에는 1세대 가족경영이었으나 경영성도가 나타나면서 직계가족의 귀

농(U-턴)에 의한 영농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작 전업농, 파프리카 전업농, 과수 전업농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조직화를 통해 특정 부문을 외부화하는 사례로 파프리카 집하장(APC), 로즈피아 수출조직 등이 있으며, 개별경영에서 극복하기 힘든 유통 및 수출 부문을 동종농가의 조직화를 통하여 외부화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외연적인 경영규모 확대의 제약을 복합화 및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며 범위의 경계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수 전업농의 사례에서 보면, 복숭아 단작의 노동력 집중화를 방지하고 주년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배 농사와 벼농사의 복합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또, 벼농사 전업농의 사례를 보면 생산을 중심으로 한 육묘사업이나 가공사업 등의 전후방 사업부문에 참여하여 수직적으로 계열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선도적 전업농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농가와 조직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농가들은 각각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농업경영자들은 지역의 생산조직 또는 학습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례농가들은 쌀전업농-부친 쌀전업농 회장, 파프리카 전업농-작목반장, 화훼전업농-화훼유통법인 회장, 과수전업농-과수연구회 회장, 축산전업농-한우회 총무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선도적 전업농은 부친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가족경영의 경영교육 기능 등을 활용함으로써 후계 인력의 확보도 용이하게 실현하였다. 화훼전업농의 경우는 가업을 잇기 위해 자녀를 체계적인 후계자 교육을 통하여 양성하고 있다. 반면에, 축산전업농의 사례를 보면 생산기반 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등 신규 창설농으로 정착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전업농 사례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특징을 종합하면, 농가의 경영 발전과 유연한 승계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농업을 담당할 전업농은 경영자 정신과 역량을 갖춘 리더형 인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개별농가의 발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화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영농조직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는 지역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농지 등 이동 불가능한 지역자원을 토대로 농업경영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대체로 집단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사회조직적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농가의 영농규모나 영농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을의 영향이 크며,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영농도 농가간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마을 조사와 개별농가 조사의 목적은 농가의 규모, 구조, 성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는 집합체인 마을 속에서 농가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개별농가 조사를 통한 정태적 접근을 통해 농가의 단면을 파악하고, 마을조사를 통한 동태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농가와 지역간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농가 성격변화에 대한 흐름을 짚어 내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조사 개요

조사대상은 농업적 특성이 강한 50호 내외의 자연부락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과 작목을 고려하여 강원(축산 중심), 충남(시설원예 중심), 전

북(논벼 중심), 경남(과수 중심) 등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200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농가 조사로서 해당지역 대학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면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마을조사로서 연구자가 해당지역 마을대표(이장)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7-1. 조사대상 마을과 농가 수

구 분	빈 도(호)	비 율(%)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70	28.8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61	25.1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52	21.4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60	24.7
합 계	243	100

2. 사례 마을의 농가 구성과 영농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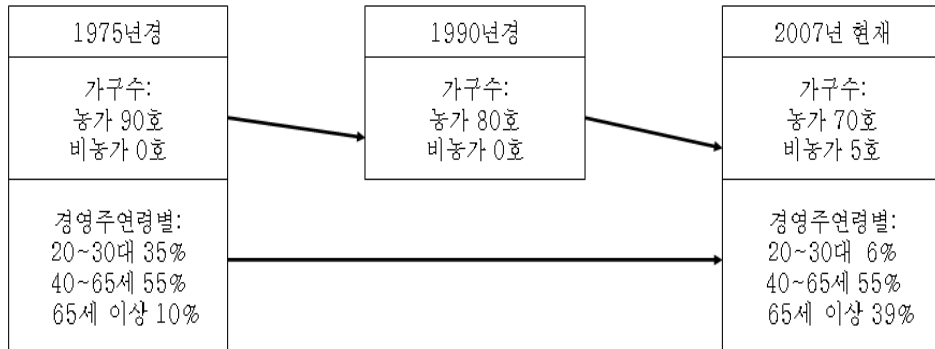
2.1. 강원 춘천 서면 방동리

2.1.1. 가구 구성의 변화

이 마을의 농가호수는 1975년경 90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70호로 조사되었다. 이 중 50호가 경종작물 생산에, 20호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최근 주변 지역 개발과 더불어 비농가 5호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 당시 경종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ha 수준에서 2007년 1.6ha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이후 한우사육에 집중하면서 한우사육 농가당 평균적으로 40여

그림 7-1. 방동리의 가구 구성 변화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시장, 농협, 유통업체 등을 이용하던 기존의 한우 출하방식에서 탈피하여 2004년 이후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춘천 등 영서 5개 시군이 모여 출범시킨 ‘하이록’이라는 한우 브랜드를 통해 한우를 출하하면서 한우 사육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75년경 10% 가량이던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2007년 3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975년 당시 20~40대 경영주들이 지금까지 마을의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농가는 6호이며,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문화가정 농가의 아들로 마을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이들 가정 아동들의 적응을 위해 마을 차원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고령화가 심해져가는 농촌에서 다문화가정 농가가 기존 농가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2. 영농 여건의 변화

의암댐 서쪽편에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현재 한육우 사육과 논벼, 인삼, 더덕 등을 재배하고 있다. 1975년경 전체 경작면적은 90ha에서 2007년 80ha로 감소했으며, 이 중 논과 밭의 비중이 각각 50%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7-2. 방동리의 영농 여건 변화

1975년경	1990년경	2007년 현재
주요 영농형태: 전작, 수도작	주요 영농형태: 축산, 수도작	주요 영농형태: 축산, 수도작
경지면적(90ha) :논 60%, 밭40%	경지면적(80ha) :논 60%, 밭 40%	경지면적(80ha) :논 50%, 밭 50%
사육두수: 한우 200여두	사육두수: 한우 500여두	사육두수: 한우 800여두
농지가격: 1,500~3천원/m ²	농지가격: 1만5천~1만8천원/m ²	농지가격: 5만~6만원/m ²

1970~80년대에는 밭에서 주로 담배농사를 지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인삼과 고추로 작목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주변 지역에서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인삼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수매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 산비탈의 경사진 밭에서는 더덕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1975년경 농가당 2~3마리 수준에 머물던 한우 사육규모가 현재 농가당 10두 내외로 증가하여 마을 전체에서 8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우 800여 마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친환경 처리시설을 통해 이 마을과 주변 지역에 전량 퇴비로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의암호 주변 전원주택단지 조성 붐이 일고 주변 관광지(신씨묘, 애니메이션 박물관: 한류관광코스에 포함)가 개발되면서 주변 농지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5만~6만원/m²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증가로 인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주변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환경 훼손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외지 자본의 유입을 통한 관광지 및 관광시설 개발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 마을에서 공동

으로 약초(더덕), 장독 및 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 마을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상황이므로 2007년 현재 5호를 차지하고 있는 비농가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호당 경지면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과 시도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상당 수준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는 축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부지원과 농외소득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충남 부여 세도면 가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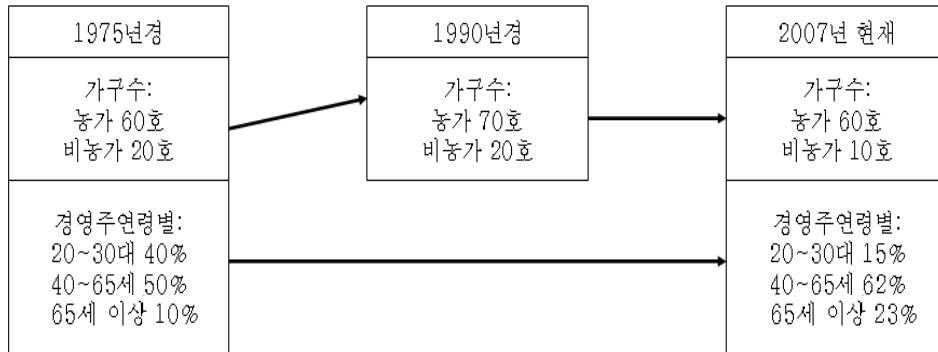
2.2.1. 가구 구성의 변화

이 마을의 농가호수는 1975년 약 60호에서 1990년 70호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주된 요인으로 꾸준한 토마토 재배의 수익성 증가와 1980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일본으로의 수출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귀농이 꾸준히 늘면서 농가호수가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일본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국내 토마토 가격의 하락과 함께 재배 농가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마을의 농가호수도 감소하였다.

2007년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40대가 50%, 65세 이상이 23%로 비교적 젊은 경영주의 비율이 높으며, 이는 시설작물 재배로 인한 고수익 실현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어려워지는 토마토 시장 상황과 수출 여건에 기인하여 젊은 농업인의 신규취농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호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주 고령화도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젊은 경영주의 비율과 소득이 높은 이 마을은 기타 조사대상 마을보다 초·중·고에 취학 중인 동거자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

그림 7-3. 가회리의 가구 구성 변화



근 이 마을에도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다문화가정은 3호이며, 이들 다문화가정에 영유아기 아동이 2명이다. 이 마을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2. 영농 여건의 변화

세도면 가회리는 면소재지에서 4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부여와 논산 사이 금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농업은 1975년경 수도작과 전작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 이후 토마토 재배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0년 이후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2007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50% 가량을 시설재배온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5% 가량이 방울토마토이다.

이 마을은 원예단지로서 농지가격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 행정수도 이전 발표 당시 2007년 가격보다 높은 1만8,000원/㎡까지 상승하였다. 또, 마을의 임차지 비율이 40~50% 수준이었으나, 행정수도 이전이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증가하여 임차지 비율이 6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2005년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 토마토를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를 통한 직거래를 시도했으나, 소규모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일손의 부족

그림 7-4. 가회리의 영농 여건 변화

1975년경		1990년경		2007년 현재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전작	→	주요 영농형태: 시설작물, 수도작	→	주요 영농형태: 시설작물, 수도작
경지면적(60ha): 논 70%, 밭 30%	→	경지면적(55ha): 하우스 40% 논 40%, 밭 20%	→	경지면적(55ha): 하우스 50% 논 40%, 밭 10%
농지가격: 1,500~3천원/m ²	→	농지가격: 6천~9천원/m ²	→	농지가격: 1만2천~1만5천원/m ²

등으로 인해 지금은 운영을 멈춘 상황이다. 또한 토마토 농장 체험을 위한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수차례 초등학교들의 방문을 받았으나, 행사를 통한 홍보 효과나 이익보다 어린 학생들이 토마토 생산 시설을 손상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현재는 토마토 생산과 논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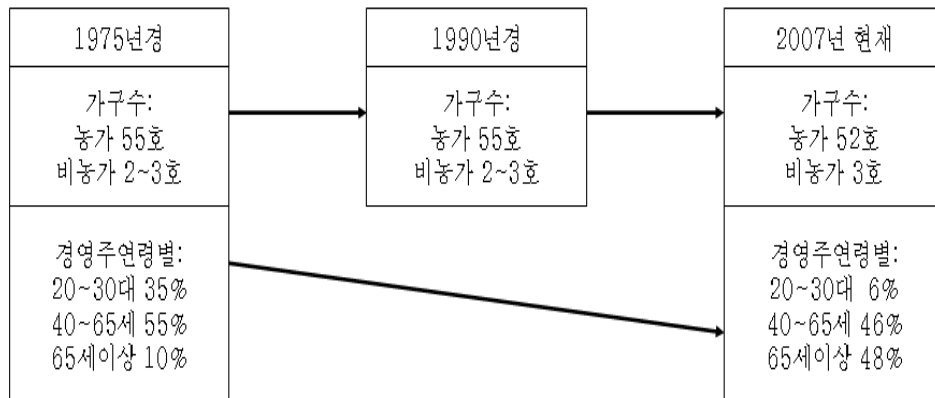
시설원예농업을 통해 비교적 높은 소득을 실현해 온 이 마을도 농업소득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마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분간 변화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전북 김제 부량면 용성리

2.3.1. 가구 구성의 변화

이 마을의 농가 수는 52~55호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975년경 1.8ha에서 1990년경 3.1ha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그림 7-5. 용성리의 가구 구성 변화



3.3~4ha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1975년경 10%였던 65세 이상 비율은 2007년 48%에 이르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농가는 2호(아동은 미취학 2명)이다.

현재 마을 경작지의 70% 가량이 임차지이며, 임차지의 소유주는 대부분 이 마을 구성원들이고, 경영주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과 사망 등으로 인해 소수의 젊은 경영주에게 경작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작지 집중은 자연스럽게 논농사의 기계화를 촉진시켰으며, 현재는 벼 육묘부터 수확까지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어 있다.

마을 농가와 농경지 모두가 쌀 농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쌀농업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과 쌀농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에서 재배된 쌀의 대부분은 부량농협을 통해 ‘지평선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으며, 주변 마을과 함께 지평선 축제에 참가하여 지역 쌀브랜드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2.3.2. 영농 여건의 변화

부량면 용성리는 면소재지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삼국시대 농경 유적지인 벽골제 인근의 마을로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 속해 있는

그림 7-6. 용성리의 영농 여건 변화

1975년경		1990년경		2007년 현재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경지면적(약 100ha): 논 100%	→	경지면적(약 170ha): 논 100%	→	경지면적(약 170ha): 논 100%
농지가격: 1,500/m ²	→	농지가격: 3천~6천원/m ²	→	농지가격: 9천~1만2천원/m ²

쌀농업을 주로 하는 곳이다. 밭이 없으므로 벼농사 이외의 농업형태는 거의 없으며, 전체 경지면적은 1975년경 약 100ha에서 1990년경 약 170ha로 증가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지가격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이 모두 벼농사 지역으로 농외 목적의 개발 가능성도 극히 낮기 때문에 순농촌 지역으로서의 성격은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05년 노후화로 인해 무너져 내린 육묘장과 묘판장의 재건축과 건립 이후 60년이 된 마을회관을 재건축해야 하고, 대형농기계가 다니기에 비좁은 농로 확장 공사 등이 마을의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사업의 경우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김제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은 벼농사 이외에 타 작목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영주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기존 방식의 벼농사 이외에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논농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경남 사천 정동면 풍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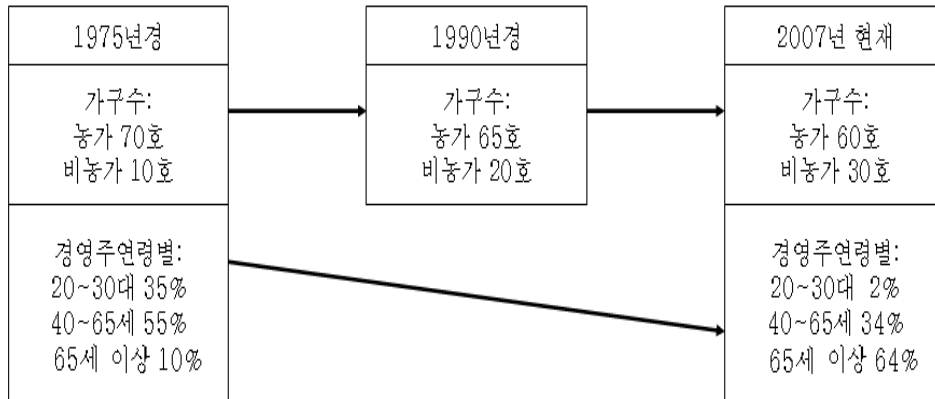
2.4.1. 가구 구성의 변화

1975년경 마을 전체 가구 수는 80호로 현재와 큰 변화가 없으나, 농가의 구성 비중은 전체 가구 중 70호에서 현재 60호로 감소했으며, 주작목으로는 논벼농가가 30호이고, 과수농가가 20호이다. 호당 경지 면적은 1975년경 약 1.0ha에서 2007년 현재 약 1.2ha로 증가했으며, 과수원 면적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논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논벼 농가당 평균 논 경지 면적이 0.8ha 가량의 영세한 수준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75년경 과반수를 넘던 20~40대 경영주의 비율이 2007년 2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64%에 달하고 있다. 1975년 당시 20~40대 경영주들이 30년이 지난 현재 계속해서 마을의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작목전환이나 농업 이외의 분야로 전직 또는 농촌관광마을 사업 등 기존의 농사 이외에 소득 증진을 위한 여타 활동으로의 진출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마을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들어 아파트단지나 도로 건설 등의 도시적 개발로 인해 과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연부락에서 점점 도시근교의 전원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개나 닭 등의 울음소리와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절도 등의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거지의 특성을 간직한 자연부락 농가의 생활양식과 현대적인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이 마을은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마을 내에 비농가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7. 풍정리의 가구 구성 변화



2.4.2. 영농 여건의 변화

정동면 풍정리는 사천 시가지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으로 마을 앞뒤를 둘러싸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마을 전체 경지면적은 1975년경 약 70ha에서 2007년 현재 60ha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벼농사와 밭농사 중심의 영농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부터 과수원 규모를 늘리기 시작해 현재 과수원이 마을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논 면적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단감과 배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배는 국내 출하를 주로 하고, 단감의 경우 대과는 국내 출하용으로, 중과는 수출용으로 납품되고 있다. 특히 사천지역의 단감 수출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며, 이로 인한 수익증대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근년에 칠레와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과일 가격하락 및 과수원 폐원신청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과수원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과수원 면적은 2000년 초반 전체 경지 면적의 55%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2~3년 사이 5%포인트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8. 풍정리의 가구 구성 변화

1975년경	1990년경	2007년 현재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전작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과수	주요 영농형태: 수도작, 과수
경지면적(약80ha) :논 60%, 밭 30% 과수원 10%	경지면적(약75ha) :논 50%, 밭 20% 과수원 30%	경지면적(약70ha) :논 35%, 밭 15% 과수원 50%
농지가격: 1,500~3천원/m ²	농지가격: 1만5천~3만원/m ²	농지가격: 12만~15만원/m ²

2000년대 들어 마을 앞(삼성아파트: 400세대 규모)과 뒤(송보아파트: 900세대 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재정비되면서 마을의 농지가격이 1990년 초반에 비해 약 15년 동안 10배 가량 상승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마을토지의 경우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폭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서 농업을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에 대한 세금도 큰 폭으로 올라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마을 인근의 개발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은퇴 농가의 농지를 임차하는 수준으로 규모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수원의 폐원으로 인해 마을 전체의 농업이 위축되는 추세이다.

3. 사례 마을 농가의 영농 실태와 전망

3.1. 농가의 영농 실태

전체 조사농가의 83% 이상이 전업농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 농업총조사의 전국 평균인 62.5%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쌀 농업지역인 김제의 호당 경지면적이 가장 많으며, 시설원에 농업지역인 부여가 호당 경지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조사대상 마을의 농업 집중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농업경영 형태도 전국적인 경향과 같이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임차지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 사천을 제외하면 40~50%의 농가가 임차지 없이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여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표 7-2. 전·겸업별 농가 분포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70 (100)	60 (100)	52 (100)	59 (100)
전업농	53 (75.7)	57 (95.0)	40 (76.9)	50 (84.7)
1종겸업	2 (2.9)	1 (1.7)	4 (7.7)	5 (8.5)
2종겸업	15 (21.4)	2 (3.3)	8 (15.4)	4 (6.8)

표 7-3. 호당 평균 경지면적

단위: ha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1.2	0.9	3.4	1.2
논	0.6	0.8	3.4	0.4
밭	0.6	-	-	0.2
과수원	-	0.1	-	0.6

자료: 본연구 조사결과(2008.5).

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농지소유 증가로 인해 임차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심에 근접해 있는 사천의 경우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임차 대상농지가 개발대상 토지로 전용된 것이 낮은 임차비율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조사대상 전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영농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고 있어 이농, 이촌, 고령화 등에 의한 영농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 농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금 조달과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이 영농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춘천과 사천지역 농가의 50%가량이 500만원 미만의 농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수준(2005년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원예 지역인 부여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농가 호당 규모가 큰 쌀 농업지역인 김제가 그 뒤를 이어, 과채류 등의 경제작물과 규모화가 진전되어 있는 지역의 농축산물 판매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 현재 경작지 중 임차지 비율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70	61	52	60
없 음	31(44.3)	26(42.6)	28(53.8)	43(71.7)
50% 이상	20(28.6)	24(39.3)	10(19.2)	8(13.3)

자료: 본연구 조사결과(2008.5).

표 7-5. 영농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70 (100)	61 (100)	52 (100)	60 (100)
영농기술	1 (1.4)	3 (4.9)	1 (1.9)	1 (1.7)
자금조달	8 (11.4)	21 (34.4)	5 (9.6)	5 (8.3)
노동력	33 (47.1)	23 (37.7)	26 (50.0)	43 (71.7)
판 로	23 (32.9)	4 (6.6)	12 (23.1)	9 (15.0)
기 타	5 (7.1)	10 (16.4)	8 (15.4)	2 (3.3)

자료: 본연구 조사결과(2008.5).

표 7-6. 전년도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69 (100)	61 (100)	48 (100)	60 (100)
500만원 미만	32 (46.4)	3 (4.9)	10 (20.8)	31 (51.7)
500만~1,000만원	12 (17.4)	4 (6.6)	7 (14.6)	14 (23.3)
1,000만~2,000만원	8 (11.6)	3 (4.9)	9 (18.8)	6 (10.0)
2,000만~3,000만원	7 (10.1)	12 (19.7)	9 (18.8)	5 (8.3)
3,000만~5,000만원	3 (4.3)	14 (23.0)	5 (10.4)	3 (5.0)
5,000만~1억원	5 (7.2)	22 (36.1)	5 (10.4)	-
1억원 이상	2 (2.9)	3 (4.9)	3 (6.3)	1 (1.7)

표 7-7. 연간 생활비 분포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70 (100.0)	66 (100.0)	62 (100.0)	60 (100.0)
500만원 이하	16 (22.9)	10 (15.2)	7 (11.3)	7 (11.7)
500만~1,000만원	17 (24.3)	12 (18.2)	22 (35.5)	25 (41.7)
1,000만~2,000만원	21 (30.0)	22 (33.3)	22 (35.5)	14 (23.3)
2,000만~3,000만원	12 (17.1)	13 (19.7)	7 (11.3)	11 (18.3)
3,000만원 이상	4 (5.7)	9 (13.6)	4 (6.5)	3 (5.0)

자료: 본연구 조사결과(2008.5).

조사대상 지역 농가들의 연간 생활비는 1,0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취학 중인 동거 자녀가 많은 부여가 타 지역보다 생활비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농가의 경영 승계와 전망

기존 경영주의 영농승계 방식은 장자 우선 승계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부친과의 관계는 과반수 이상이 장남(녀)이며, 농가 창설 형태

도 부친으로부터 집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가 평균 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부여 지역을 제외하면 60대 이상 고령 경영주의 비율이 40~60%에 달하고 있으며, 영농후계자를 보유한 경우도 평균 7%(동거자녀의 경우)로 앞으로의 영농승계 방식은 누가 승계하는가보다 승계자 유무에 대한 것이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표 7-8. 경영주 취농시 선친과의 관계

단위: 호(%)

	춘천		부여		김제		사천	
합 계	70	(100)	59	(100)	51	(100)	60	(100)
장남(녀)	42	(60.0)	29	(49.2)	26	(51.0)	31	(51.7)
차남(녀)	18	(25.7)	15	(25.4)	14	(27.5)	18	(30.0)
차남(녀) 이하	7	(10.0)	14	(23.7)	6	(11.8)	10	(16.7)
기타	3	(4.3)	1	(1.7)	5	(9.8)	1	(1.7)

표 7-9. 농가 창설의 형태

단위: 호(%)

	춘천		부여		김제		사천	
합 계	70	(100)	60	(100)	52	(100)	60	(100)
선친의 집과 농지 상속	42	(60.0)	22	(36.7)	21	(40.4)	29	(48.3)
선친으로부터 분가하여	13	(18.6)	25	(41.7)	14	(26.9)	23	(38.3)
농가 창설								
귀농	8	(11.4)	11	(18.3)	7	(13.5)	7	(11.7)
기타	7	(10.0)	2	(3.3)	10	(19.2)	1	(1.7)

표 7-10. 영농후계자 상황

단위: 호(%)

	춘천		부여		김제		사천	
합 계	70	(100)	59	(100)	51	(100)	60	(100)
동거자녀 승계계획	3	(4.3)	8	(13.6)	2	(3.9)	4	(6.7)
귀농자녀 승계계획	6	(8.6)	5	(8.5)	4	(7.8)	10	(16.7)
없음	61	(87.1)	46	(78.0)	45	(88.2)	46	(76.7)

자료: 본연구 조사결과(2008.5).

60세 이상 고령 경영주의 비율은 높은 반면에 영농후계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향후 영농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 또는 축소하려는 농가의 비율이 87% 이상으로 조사된 것은 영농승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비교적 농업소득이 높고 규모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농업생산은 소수의 전문 농업경영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11. 농업경영주 연령별 분포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70 (100)	61 (100)	50 (100)	60 (100)
20대	-	-	-	-
30대	4 (5.7)	9 (14.8)	3 (6.0)	-
40대	13 (18.6)	17 (27.9)	6 (12.0)	6 (10.0)
50대	23 (32.9)	16 (26.2)	13 (26.0)	10 (16.7)
60대	16 (22.9)	12 (19.7)	14 (28.0)	21 (35.0)
70대 이상	14 (20.0)	7 (11.5)	14 (28.0)	23 (38.3)
65세 이상	27 (38.6)	14 (23.0)	24 (48.0)	37 (61.7)

표 7-12. 농가의 향후 영농 의향

단위: 호(%)

	춘 천	부 여	김 제	사 천
합 계	70 (100)	61 (100)	50 (100)	60 (100)
현재 경영규모 유지	43 (61.4)	39 (63.9)	26 (52.0)	30 (50.0)
경영규모 확대	4 (5.7)	11 (18.0)	12 (24.0)	2 (3.3)
경영규모 축소	23 (32.9)	11 (18.0)	12 (24.0)	28 (46.7)

자료: 본연구 조사결과(2008.5).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마을과 농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규모 확대의 동향으로 농지 매입이나 개간 등의 방식보다는 은퇴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규모화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우 사육에 집중한 마을에서는 과거 1980년대 초반까지 경종농업의 생산요소로서 축력 공급을 위한 수준(호당 2~3두)에서 현재는 한우 사육농가당 평균 40여두를 사육하는 수준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나 경종농업보다는 축산업에서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가 농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다각화는 농가 수입의 측면에 관심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농가의 수입원 중 농업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개별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생산한 농산물과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거래 활동을 마을 단위 또는 다수 농가가 모인 영농조직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농가를 중심으로 마을의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 또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기존 농업 자원만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단계에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수익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 농업·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농업인들의 다양한 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요소가 인력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사

회 활성화의 주체이자 객체인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노동력 부족의 핵심은 고령화와 젊은 노동력 유입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 생산의 효율성 증대와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후계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농업인력과 관련하여 최근에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가정의 출현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농촌사회에 외국 타 문화권의 인력이 결혼이민이라는 경로로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문제에 어떠한 해법으로 다가올 것인가, 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농촌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과 경영구조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과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농의 동태적 변화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농가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농가 육성 및 농업구조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족농의 이론과 논의 배경을 정리하였다. 가족농(family farming)이라는 용어는 헨리 테일러(H.Taylor, 1919)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가족적 농업경영’의 줄임말로 “가족을 단위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가족농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농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노동력이 쇠퇴하는 반면에 고용노동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장에 토지 및 농업생산이 집중되고, 자작농의 감소와 함께 대규모 농가도 차지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들도 가족농의 경영체적 성격이 악화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가족농에 대한 동경

과 이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가족농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농업경영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농가의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들어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90년에는 10대가 최빈층이고 50대가 다음으로 많았으나, 1990년 이후 50대 이상 계층이 그대로 상향이동하여 고령농가로 잔류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고령화 지수는 2005년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인 298이고,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의 3배인 47.6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의 농가인구를 추계해 보면, 고령화 구조가 더욱 심각하여 50~70세 계층이 두터운 벽을 형성하는 ‘역삼각형’ 형태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농가의 가족 구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1960년대의 6인 수준에서 2005년 2.7인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구원 수를 보면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농가 형태로 유지되어 온 2세대가구 이상의 농가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핵가족화 진전에 따라 1세대가구(부부 가구) 및 독신가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업경영의 축소 및 경영 존속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영농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의 16.4%에서 2005년에는 3.5%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농가의 경영 승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농업경영의 자립과 규모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족농의 자립을 위한 조건으로, 농업경영에 의한 소득균형(도시근로자 노동보수와 균형)과 가족노동력의 완전취업(직업으로서 연간 25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라는 기준이 제시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벼농사의 자립경영규모를 시산하면 2005년에 소득균형규모가 5.96ha이고 완전취업규모가 12.0ha로서 경영규모 확대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를 배경으로 영농규모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더욱이 지난 반세기 동안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영규모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은 전문경영에 의한 생산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논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05년에 호수로 4.9%, 면적으로 26.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호수 비율이 9%, 면적 비율이 36.8%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규모화를 추진하지 못한 농가는 영세농 계층으로 누적되어 농가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5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47만호이며, 그중 65세 이상이 48.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영세고령농가의 노후생활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고지가(실세지가 > 수익지가) 경향에 따라 농지구입보다는 임차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가 유리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농일수록 임차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의 생계형 임차농이 쇠퇴하고 대규모 기업적 임차농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제5장에서는 농가의 농업경영 형태와 조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농가의 농업경영 분화는 노동력 분화와 영농 형태의 분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력 분화는 ‘가구원 겸업 → 경영주 겸업 → 탈농’의 과정에서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분화되고, 농업경영 형태의 분화는 논농사 중심에서 벼농사에 전문화하느냐 혹은 다른 작목과 복합화하느냐의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농가의 전·겸업별 동향을 보면, 1960년 이후 1995년까지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겸업농가는 1종 겸업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겸업 종사자는 경영주 겸업보다 가구원 겸업이 많은 경향이다.

농업경영의 형태를 보면, 1970년대 말에 주곡 자급을 달성할 정도로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소득작목이 도입되는 등 상업농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개방화 진전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작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 농업성장을 주도했던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은 그 후 감소세로 반전되고, 소득이 안정된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농가 간에 농작업이나 농업경영을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조직이 성립되고 있다.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조사한 생산조

직 참여농가는 22만6천호(작목반 20만2,342호, 농업법인 4만9,200호)이며, 이들이 결성한 농업법인은 총 5,626개(영농조합법인 4,293개, 농업회사법인 967개)가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개별농가 이외에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성립되어가는 추세이다.

제6장에서는 전업농가의 경영발달사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조사의 목적은 경영규모 확대를 통해 자립경영 수준으로 성장해 온 선도적인 전업농의 사례를 통하여 가족경영의 경영 발달과 경영구조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요소적 관점의 노동 측면에서 가족노동의 변화, 영농규모의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영조직의 변화를 검토하고, 가족경영의 제약요인에 대하여 다른 경영요소 및 경영조직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소해 가는 경영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인 농가 5호를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첫째 사례는 3세대에 걸친 가족협업을 통하여 38ha의 수도작 대규모 영농에 더하여 육묘사업과 도정사업을 도입하여 벼농사 전후방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쌀 전업농의 사례, 둘째는 작목반 조성 및 농협조직과 연계하여 수출농업을 실현한 파프리카 전업농의 사례, 셋째는 시장개척을 위하여 동종의 전업농가와 연합하여 유통조직을 설립한 화훼 전업농의 사례, 넷째는 3세대 가족협업과 복합화를 통하여 경영효율을 강화시킨 과수 전업농의 사례, 다섯째는 신규 창업농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경영을 발전시킨 한우 전업농의 사례이다. 이들 사례 농가의 공통점은 단순한 전업농이 아니라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경영규모 확대와 함께 경영의 복합화·다각화를 통하여 경영 효율을 증진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농가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농산물 유통에 대해 농가의 조직화를 통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농촌마을 속의 농가 변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농업적 특성이 강한 50호 내외의 자연부락으로 지역과 작목을 고려하여 강원(축산 중심), 충남(시설원에 중심), 전북(논벼 중심), 경남(과수

중심) 등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마을과 농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면 규모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화의 경우 농경지 구매나 개간 등의 방식보다는 은퇴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규모화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축산에 집중한 마을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경종농업의 축력을 위한 수준(호당 2~3두)에서 현재는 평균 한우 40여두를 사육하는 규모로 조사되어 경종농업보다는 축산업에서 적극적 규모화에 대한 결과를 엿볼 수 있다.

농가경영의 규모화가 농업 생산에 집중되어 조명되었다면 다각화는 농가수입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농가의 수입원 중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개별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의 직거래 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력, 자본, 재화 등 경영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별농가보다는 마을 단위 또는 다수 농가가 모인 조직을 통해 수익원을 창출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을의 특성을 살린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을의 특성만이 아닌 새로운 농촌관광의 요소를 창출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2. 결론 및 정책 제언

그동안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의 주역을 담당할 신규 창업은 저조하고 기존 전업농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승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농층이 분해되면서 대다수의 농가가 영세농으로 전락하고 특히 생계형 고령농가가 농촌의 중심 세력으로 남게 됨으로써 농촌사회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농업을 유지해 온 상속농가도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영농을 승계

할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점점 줄어 2005년에는 3%대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경영주는 향후 십수년 동안에 후계자에게 농업경영을 물려주지 못하고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래 농업의 주체로 잔류할 수 있는 농가는 안정적인 가족 구성을 가진 기간적 전업농에 한정될 것이다. 즉, 기간적 전업농은 ‘부부 중심 + 기간종사자’ 농가를 말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농가 수를 추정할 경우 향후 10년까지 대략 30만 호 정도가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0년대까지를 농가(가족농) 중심의 농정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농가 이외의 다양한 경영체 육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가족농이 농업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은 사실이지만, 농가 중심의 농정 체제는 이제 바뀌어야 할 시기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맞춤형농정’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면서 전실한 가족농을 육성해 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농가 정의 조정(농업인 자격 하한규모의 인상)이 주장되었으나, 맞춤형농정을 통해 정책 대상의 기준을 구분함으로써 농가 정의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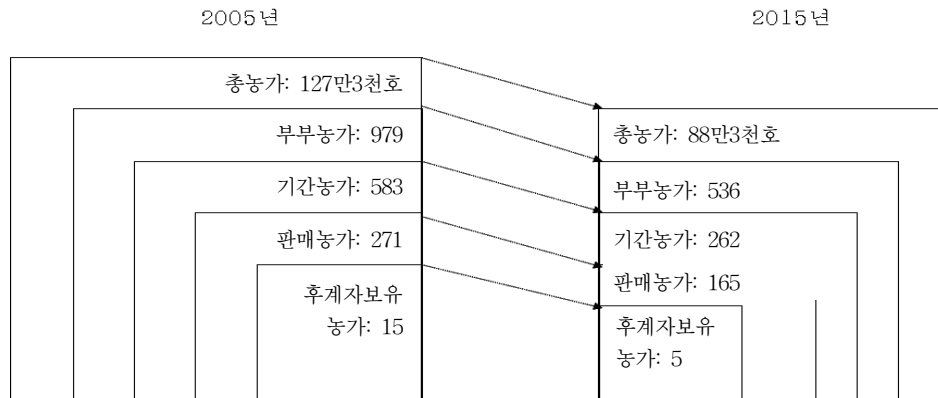
표 8-1. 농가 특성별 변화 전망

단위: 호, %

	1995	2000	2005	2015
총농가	1,500,851 (100)	1,383,468 (100)	1,272,908 (100)	882,980 (100)
부부중심 농가	1,479,070 (98.5)	1,076,952 (77.8)	978,585 (76.9)	536,066 (60.7)
기간종사 농가 (60세 미만, 3개월 이상)	957,842 (63.8)	888,677 (64.2)	660,162 (51.9)	278,242 (31.5)
농산물판매액 1,000만원 이상	437,521 (29.2)	425,088 (30.7)	403,591 (31.7)	307,350 (34.8)
영농후계자 보유농가	197,161 (13.1)	150,453 (10.9)	45,163 (3.5)	21,664 (2.5)

주: 2015년 전망치는 1995~2005년 변화율을 연장하여 추정.

그림 8-1. 향후 10년간 농가의 존속 가능성 전망(축차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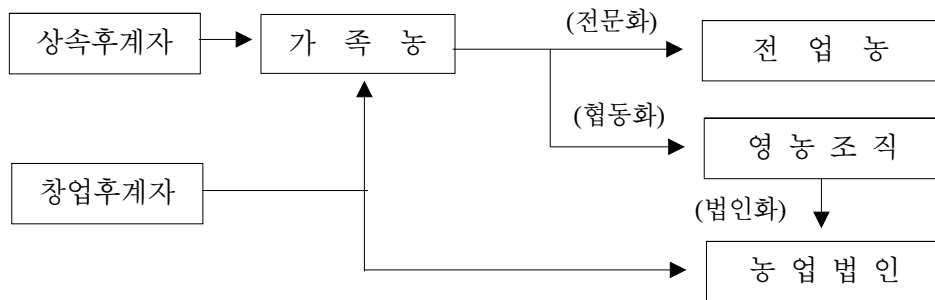


맞춤형농정은 하향식 추진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 맞춤형농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가 필수적이며, 이를 확장하여 농업법인까지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첫째, 미래 농업의 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노력과 아울러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20만호 정도의 전업농이 유지되려면, 농가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약 30년으로 볼 때 연간 6천명 정도의 농업경영자가 신규로 진입되어야 한다.

가족농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영체로서 현행 농업법인 제도를 확장하여 농가의 ‘1호 1법인’ 설립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농가의 법인화를 통해 후계자 및 여성농업인의 경영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농가 및 농업법인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그림 8-2.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 육성의 체계



제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의 농업경영체 관련조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농정 차원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비효율적인 고령농가를 어떻게 유연하게 은퇴시키느냐 하는 것이며, 현재의 고령농가는 대부분 전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농업구조조정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경영은퇴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수는 54만9천명이고, 이들의 보유농지는 48만4천ha에 달하므로, 고령농업인의 자연스런 경영은퇴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한 농지가 잔류농가에게 이전되어 점진적인 영농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한 젊은 농업인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통하여 영농후계자 진입과 세대 교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농업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자연스런 은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경영주가 유연하게 경영이양할 수 있도록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995년에 농어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약 45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은 2014년 이후이기 때문에 농정에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농업 단위의 조직화와

함께 지역의 자원과 여건을 활용하는 다양한 영농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의 이농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지가 황폐화되고 농촌사회가 활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농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형태의 위탁영농조직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농가의 조직화는 전통적인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시장개방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원료 농산물의 생산만으로는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농산물의 저장·가공·유통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중요하다.

농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가족농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품목 조직이나 지역 조직을 통하여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사업과 지역농업특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농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1: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 1990, 1995, 2000, 2005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정함.

□ 전체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1,691	0.1	515	0.0	305	0.0
30-39세	31,375	2.5	10,219	1.0	2,959	0.3
40-49세	183,808	14.4	98,546	9.2	42,203	4.6
50-59세	286,616	22.5	244,970	22.9	216,222	23.7
60-69세	460,413	36.2	359,490	33.6	334,944	36.7
70세 이상	309,097	24.3	354,811	33.2	315,611	34.6
합 계	1,273,000	100.0	1,068,552	100.0	912,244	100.0
65세 이상	572,515	45.0	556,338	52.1	500,667	54.9

□ 논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665	0.1	175	0.0	72	0.0
30-39세	12,592	1.9	3,978	0.7	914	0.2
40-49세	73,955	11.4	38,667	6.8	15,292	3.4
50-59세	129,488	20.0	105,564	18.5	82,720	18.5
60-69세	258,413	39.9	200,486	35.2	163,601	36.7
70세 이상	172,844	26.7	221,489	38.8	183,470	41.1
합 계	647,957	100.0	570,359	100.0	446,069	100.0
65세 이상	326,303	50.4	341,592	59.9	280,945	63.0

□ 과수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73	0.0	22	0.0	9	0.0
30-39세	2,652	1.8	546	0.4	80	0.1
40-49세	25,803	17.6	13,946	10.8	4,149	3.4
50-59세	40,352	27.6	37,193	28.8	37,126	30.0
60-69세	49,968	34.1	45,098	34.9	49,067	39.7
70세 이상	27,546	18.8	32,534	25.2	33,150	26.8
합 계	146,395	100.0	129,339	100.0	123,581	100.0
65세 이상	53,929	36.8	55,232	42.7	58,565	47.4

□ 특용작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30	0.1	0	0.0	0	0.0
30-39세	1,518	5.7	786	3.3	155	0.8
40-49세	5,695	21.3	4,464	18.8	3,094	15.2
50-59세	6,782	25.4	7,192	30.3	6,502	32.0
60-69세	7,739	29.0	6,105	25.7	6,192	30.5
70세 이상	4,969	18.6	5,186	21.9	4,361	21.5
합 계	26,733	100.0	23,733	100.0	20,304	100.0
65세 이상	9,117	34.1	8,300	35.0	7,472	36.8

□ 채소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540	0.2	141	0.1	82	0.0
30-39세	6,299	2.7	1,906	0.9	794	0.4
40-49세	40,112	17.4	23,354	11.6	9,786	5.3
50-59세	57,377	24.9	54,165	26.8	52,490	28.2
60-69세	74,784	32.5	64,276	31.8	67,928	36.5
70세 이상	51,302	22.3	58,323	28.8	54,835	29.5
합 계	230,413	100.0	202,166	100.0	185,915	100.0
65세 이상	92,308	40.1	91,690	45.4	89,947	48.4

□ 화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15	0.1	0	0.0	0	0.0
30-39세	898	8.8	224	3.1	34	0.5
40-49세	3,403	33.4	1,770	24.7	963	13.8
50-59세	3,305	32.5	2,762	38.6	2,866	41.0
60-69세	1,999	19.6	1,761	24.6	2,301	32.9
70세 이상	563	5.5	647	9.0	835	11.9
합 계	10,184	100.0	7,164	100.0	6,997	100.0
65세 이상	1,485	14.6	1,450	20.2	1,894	27.1

□ 전작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152	0.1	73	0.1	54	0.1
30-39세	3,953	3.2	1,309	1.8	415	0.6
40-49세	14,957	12.0	6,873	9.5	4,537	6.7
50-59세	22,900	18.4	15,384	21.3	14,980	22.0
60-69세	39,878	32.0	21,552	29.8	20,966	30.8
70세 이상	42,914	34.4	27,095	37.5	27,078	39.8
합 계	124,754	100.0	72,286	100.0	68,029	100.0
65세 이상	66,123	53.0	39,310	54.4	38,074	56.0

□ 축산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246	0.3	103	0.2	88	0.2
30-39세	4,165	5.0	1,341	2.2	534	0.9
40-49세	22,179	26.8	9,027	15.0	4,052	6.9
50-59세	27,096	32.7	21,649	35.9	18,644	31.9
60-69세	21,090	25.5	19,242	31.9	23,841	40.8
70세 이상	7,969	9.6	8,931	14.8	11,308	19.3
합 계	82,745	100.0	60,292	100.0	58,466	100.0
65세 이상	17,753	21.5	17,716	29.4	22,745	38.9

□ 기타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8	0.2	0	0.0	0	0.0
30-39세	212	5.5	130	4.1	33	1.1
40-49세	702	18.4	445	13.9	330	11.5
50-59세	1,130	29.6	1,062	33.0	894	31.0
60-69세	1,086	28.4	970	30.2	1,049	36.4
70세 이상	681	17.8	606	18.9	575	20.0
합 계	3,819	100.0	3,212	100.0	2,882	100.0
65세 이상	1,197	31.3	1,048	32.6	1,025	35.6

부록 2: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 1990, 1995, 2000, 2005년도 농업총조사 및 가축통계를 이용하여 경영 규모 계층별 농가 비율의 추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 논

단위: %

구 분	0.5ha 미만		0.5-3ha		3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40.36	15.74	58.46	78.08	1.17	6.19
1995	41.16	14.38	56.02	70.82	2.83	14.80
2000	42.25	13.75	53.97	66.21	3.79	20.04
2005	43.08	11.73	51.99	61.90	4.93	26.37
2010	43.26	10.52	50.08	57.88	6.66	31.60
2015	42.78	9.06	48.25	54.11	8.97	36.83

□ 밭

단위: %

구 분	0.3ha 미만		0.3-2ha		2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56.03	19.95	42.41	67.45	1.56	12.59
1995	52.33	16.21	45.15	65.81	2.52	17.98
2000	53.68	14.90	43.16	61.14	3.16	23.95
2005	54.86	13.27	41.26	56.81	3.89	29.93
2010	55.85	11.32	39.44	52.78	4.71	35.90
2015	56.63	9.09	37.70	49.04	5.67	41.87

□ 과수

단위: %

구 분	0.3ha 미만		0.3-1ha		1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47.98	15.41	41.53	46.34	10.49	38.25
1995	41.21	11.90	45.20	45.23	13.58	42.87
2000	40.51	10.77	45.40	44.91	14.09	44.33
2005	39.79	9.63	45.60	44.59	14.61	45.78
2010	39.06	8.49	45.80	44.27	15.15	47.24
2015	38.32	7.34	46.00	43.96	15.69	48.70

□ 시설원예

단위: %

구 분	300평 미만		300-2000평		2000평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24.78	4.00	69.07	70.50	6.15	25.53
1995	20.87	2.48	66.78	59.21	12.35	38.31
2000	49.94	3.45	39.56	49.49	10.50	47.06
2005	52.15	5.72	38.24	41.37	9.61	52.91
2010	54.01	11.13	36.97	34.59	9.02	54.29
2015	56.74	14.97	35.74	28.91	7.53	56.11

□ 한우

단위: %

구 분	10두 미만		10-29두		3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6.21	72.11	3.31	18.00	0.47	9.89
1995	88.08	51.86	10.25	31.49	1.67	16.64
2000	88.64	39.44	8.27	24.12	3.09	36.44
2005	78.38	26.96	14.75	26.13	6.87	46.90
2010	69.29	18.32	21.23	27.31	9.47	54.37
2015	57.85	12.49	27.72	28.67	14.43	58.84

□ 낙농

단위: %

구 분	10두 미만		10-49두		5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38.87	14.49	59.15	74.11	1.98	11.40
1995	14.99	3.45	79.38	78.76	5.63	17.79
2000	6.20	0.75	65.83	48.84	27.97	50.41
2005	4.81	0.45	45.32	27.92	49.87	71.64
2010	3.41	0.18	34.81	16.96	61.78	82.86
2015	2.02	0.14	24.30	7.77	73.68	92.09

□ 양돈

단위: %

구 분	100두 미만		100~999두		1,00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3.43	23.83	6.27	52.91	0.30	23.26
1995	74.38	7.56	23.19	55.92	2.43	36.53
2000	58.19	2.43	31.99	37.39	9.82	60.18
2005	43.16	1.02	32.83	21.13	24.01	77.85
2010	31.52	1.02	33.67	16.46	34.80	82.52
2015	23.08	0.86	34.51	10.95	42.40	88.19

□ 양계

단위: %

구 분	3천수 미만		3천~3만수		3만수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6.50	4.59	3.31	65.50	0.19	29.92
1995	97.78	3.38	1.88	52.66	0.34	43.96
2000	98.17	2.27	1.31	37.64	0.52	60.09
2005	97.56	1.46	1.37	24.80	1.06	73.74
2010	97.14	1.17	1.44	20.34	1.42	78.48
2015	96.34	0.95	1.51	16.77	2.15	82.28

부록 3: 주요국의 농가 통계

1. 미국

부표 1-1. 전체 농가호수 및 면적

	농가호수(천호)	경작면적(1,000ha)	평균경작면적(ha)
1972	2,314	411,577	178
1977	2,258	410,665	182
1982	2,241	399,341	178
1987	2,088	390,306	187
1992	1,925	382,642	199
1997	2,216	386,374	174
2002	2,129	379,707	178
2006	2,090	377,340	180

주: 농가는 1,000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영체로 정의됨.

부표 1-2. 경작면적별 농가호수(천호)

	1-9	10-49	50-179	180-499	500-999	1,000-1,999	2,000 이상
acres	1-9	10-49	50-179	180-499	500-999	1,000-1,999	2,000 이상
ha	0-4	5-20	21-72	73-202	203-404	405-809	809 이상
1972	128.3	379.5	827.9	616.1	207.3	92.7	62.2
1977	151.2	391.6	759.0	581.6	213.2	97.8	63.3
1982	187.7	449.3	711.7	526.5	203.9	97.4	64.6
1987	183.3	412.4	644.8	478.3	200.1	102.1	66.8
1992	166.5	387.7	584.1	427.6	186.4	101.9	71.0
1997	205.4	530.9	694.5	428.2	179.4	103.0	74.4
2002	179.3	563.8	658.7	388.6	161.6	99.0	78.0

부표 1-3. 판매액별 농가호수(천 호)

달러	0-2,499	2,500 -4,999	5,000 -9,999	10,000 -24,999	25,000 -49,999	50,000 -99,999	100,000 -499,999	500,000 이상
1977	460.5	300.7	314.1	394.9	300.5	263.1	203.7	18.0
1982	536.3	278.2	281.8	340.3	248.8	251.5	274.6	27.8
1987	490.3	262.9	275.0	326.2	219.6	218.1	263.7	32.0
1992	422.8	231.9	251.9	301.8	195.4	187.8	287.0	46.9
1997	693.0	265.7	267.6	293.6	179.6	163.5	282.4	70.4
2002	826.6	213.3	223.2	256.2	157.9	140.5	240.7	70.6
2006	1,153.9			597.4			257.2	81.4

부표 1-4. 조직형태별 농가호수(천 호)

	가족 및 개인농가 Family&individual	작목반 partnership	영농조합 corporation	기타법인 other-cooperative, estate or trust, institutional, etc
1977	1,965.9	232.5	50.2	9.1
1982	1,945.6	223.3	59.8	12.3
1987	1,809.3	199.6	67.0	11.9
1992	1,653.5	186.8	72.6	12.4
1997	1,922.6	185.6	90.4	17.2
2002	1,909.6	129.6	73.8	16.0

부표 1-5. 조직형태별 농가호수(천 호)

	전업농	겸업농	경영주평균연령
1972	1,427.4	851.9	51.7
1977	1,269.3	988.5	50.3
1982	1,234.8	1,006.2	50.5
1987	1,138.2	949.6	52.0
1992	1,053.2	872.2	53.3
1997	1,044.4	1,171.5	54.0
2002	1,224.2	904.7	55.3

주: 전체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농업에 투입할 경우 전업농임.

2. 일본

부표 2-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천호)

	총농가	판매농가	자급적농가	경지면적	판매농가당 평균경지면적(ha)
1975	4,953.1	-	-	4,783	-
1980	4,661.4	-	-	4,706	-
1985	4,228.7	3,314.9	913.8	4,398	1.33
1990	3,834.7	2,970.5	864.2	4,199	1.41
1995	3,443.6	2,651.4	792.1	3,970	1.50
2000	3,120.2	2,336.9	783.3	3,734	1.60
2005	2,848.2	1,963.4	884.7	3,608	1.84

주: 1) 1985년 이후 경지면적은 판매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2) 농가: 경지면적이 1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15만엔 이상인 경영체.

3) 판매농가: 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50만엔 이상인 경영체.

부표 2-2. 경지면적별 농가 호수(천호)

	열외농가	1.0ha 미만	1.0-3.0ha	3.0-5.0ha	5.0ha 이상
1975	11.5	3,447.1	1,334.3	82.6	67.7
1980	11.2	3,237.4	1,239.1	101.9	71.7
1985	51.7	1,944.3	1,133.4	109.3	76.2
1990	40.7	1,720.8	1,016.7	111.8	80.4
1995	36.6	1,527.8	892.5	110.4	84.1
2000	31.0	1,333.2	780.6	105.9	86.1
2005		1,113.8	663.2	98.6	87.7

주: 1) 열외농가는 경지규모가 10a 미만이며, 연간 판매액이 15만엔 이하인 농가임.

2) 1985년 이후는 판매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부표 2-3. 판매금액별 농가 호수(천호)

¥	판매 없음	50만 미만	50 -100	100 -200	200 -300	300 -500	500 -700	7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억	1억 이상
1980	845.2	1,489.0	697.1	758.1	331.9	287.7	118.9	63.0	35.7	34.9				
1985	181.3	933.0	617.1	673.6	307.6	283.4	128.3	80.3	49.8	23.4	19.3	17.7		
1990	177.4	877.5	558.2	556.7	241.9	227.0	114.3	84.3	58.8	27.7	24.7	21.9		
1995	163.9	745.6	523.3	422.0	231.0	203.7	111.2	86.4	69.6	34.6	31.2	17.8	11.1	
2000	182.0	751.3	440.6	333.9	172.1	150.1	84.5	74.8	60.2	31.7	29.3	18.2	6.5	1.9
2005	227.1	557.8	340.8	291.5	133.8	131.7	72.0	64.5	59.5	27.5	27.2	19.5	8.2	2.5

주: 1985년 이후는 판매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3. 영국

부표 3-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천호)

	총농가호수	총경지면적(1,000ha)	평균경지면적(ha)
1990	243.1	17,110	70.4
1995	234.5	17,196	73.3
2000	233.3	16,528	70.9
2005	286.7	16,840	58.7

주: 농가(agricultural holding)는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독립 경영체의 기술·경제적(technical-economic) 단위로서, 1ha 이상을 경작하는 경우 또는 경작면적이 1ha 미만인 경우에도 농산물 판매액이 자급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분류됨.

부표 3-2. 경영주 연령별 농가호수(천호)

	34세 미만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미상
1990	25.5	48.8	62.0	60.6	46.3	-
1995	20.9	45.5	64.0	57.6	46.6	-
2000	14.9	40.7	60.1	57.6	55.8	4.2
2005	12.6	45.7	70.3	80.1	78.1	-

부표 3-3. 표준총수입별 농가호수(천호)

	1ESU 미만	1- 2ESU	2- 4ESU	4- 8ESU	8- 16ESU	16- 40ESU	40- 100ESU	100- 250ESU	250 ESU 이상
1990	41.2	15.2	21.0	26.1	28.5	46.5	44.5	16.2	3.8
1995	30.8	13.2	22.0	28.0	28.6	40.9	44.2	21.7	5.0
2000	52.1	13.8	20.6	22.2	23.6	33.3	37.4	23.4	6.9
2005	103.4	18.4	22.4	24.6	24.0	31.4	34.6	21.1	6.9

주: 1 ESU(European Size Unit) = 1,200 EUR(약 160만원)의 표준총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

부표 3-4. 경지면적별 농가호수(천호)

	경지없 는농가	2ha	2-5ha	5-10ha	10-20ha	20-30ha	30-50ha	50-100ha	100ha 이상
1990	2.0	12.4	19.1	30.5	37.4	25.2	35.5	42.5	38.5
1995	1.7	11.6	19.0	29.5	36.1	23.7	32.8	40.9	39.3
2000	11.0	21.4	21.5	25.7	30.4	19.9	27.9	36.6	38.9
2005	38.3	34.7	33.8	28.1	30.6	19.7	27.0	35.7	38.8

4. 독일

부표 4-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천호)

	총농가호수	총경지면적(1,000ha)	평균경지면적(ha)
1990	654	19,179	29.3
1995	567	19,125	33.7
2000	472	19,098	40.5
2005	390	18,844	48.3

주: 농가(agricultural holding)는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독립 경영체의 기술·경제적(technical-economic) 단위로서, 1ha 이상을 경작하는 경우 또는 경작면적이 1ha 미만인 경우에도 농산물 판매액이 자급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분류됨.

부표 4-2. 경영주 연령별 농가호수(천호)

	34세 미만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미상
2000	74.4	130.8	115.2	99.9	24.8	16.8
2005	35.6	119.0	126.2	80.7	28.5	-

부표 4-3. 표준총수입별 농가호수(천호)

	1ESU 미만	1-2 ESU	2-4 ESU	4-8 ESU	8-16 ESU	16-40 ESU	40-100 ESU	100-250 ESU	250 ESU 이상
2000	17.2	37.5	58.9	61.6	64.5	102.4	93.5	28.2	8.2
2005	18.8	30.3	43.2	45.9	49.1	75.1	81.9	36.3	9.3

주: 1 ESU(European Size Unit) = 1,200 EUR(약 160만원)의 표준총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

부표 4-4. 경지면적별 농가호수(천호)

	경지없 는농가	2ha	2-5ha	5-10ha	10-20ha	20-30ha	30-50ha	50-100ha	100ha 이상
1990	3.9	108.2	106.5	102.2	123.4	76.9	76.2	44.4	11.9
1995	2.3	88.3	88.6	84.0	100.0	64.0	68.3	51.6	19.9
2000	2.1	35.8	79.8	74.0	87.4	51.8	62.6	54.3	24.4
2005	1.3	25.7	61.1	56.3	72.5	37.1	51.4	54.2	30.4

참고 문헌

- 김정호. 1992.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1993.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1994. “농가통계의 의의와 한계.” 『농촌경제』 1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6.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7.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7. 「고령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07. “한국농업의 비전과 과제Ⅱ: 미시적 접근.” 『2007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완배 외. 2002.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김철규. 2004.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촌사회학의 변화.” 『사회학 연구 5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홍주. 1994. 「한국 농민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농민의 가족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농림부. 1997. 「농업경영 변동분석」.
- 박진도. 1997. 「농업구조 동향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농정연구포럼.
- 박홍진. 1988. “농업생산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오내원 외. 1998. 「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 - 1998년도 특별분석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호 외. 1990. “농촌인구 이동과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11. 한국농업정책학회.
- 이영기. 1992.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환. 1998. 「농업의 구조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승연. 1997.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업생산구조 : 가족농 생산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홍균. 1987. “한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지임대차에 관한 연구.” 일본 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 최양부, 오내원. 1986. 12.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F-사이클 가설.” 『농촌경제』 9: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2006.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trange M. 1988. *Family Farming; A New Economic Vision*. Univ. of Nebraska Press.
- Galeski B. & E. Wilkening ed. 1987. *Family Farming in Europe and America*. Westview Press.

연구보고 R543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태광인쇄

전화 02-468-9430 E-mail: tprint@hanmail.net

ISBN 978-89-6013-053-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